

인권정보자료실  
ESe1.14

여성  
인권  
정보  
자료  
실  
ESe1.14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olicy & Information Cen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세계화에 불만 있는

여성적 사고, 지구적 저항

# 여성 인권을 위한 자료 실

인권정보자료실  
ESe1.14

# 세계화에 불편한

여성적 사고, 지구적 저항

# 여성 영

## [별간서] 여성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저항하라

### 세계화는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 6 여성, 세계화된 자본주의 지배를 뒤흔들다
- 14 여성과 세계화
- 38 [IMF와 여성] 은행가에게 구제금융, 여성에게 고통전달
- 45 [세계은행과 여성] 여성권리를 침해하는 세계은행
- 52 [WTO와 여성] 세계무역기구를 위한 여성 의제
- 70 세계화와 남반구 여성의 과제

### 꿈임없이 노동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 78 전지구적 노동착취공장
- 85 마킬라의 수중에 있는 중앙 아메리카의 노동자들
- 100 싯다와 그녀의 딸들: 인도 초착취지대의 여성노동자들
- 105 밥주지 투쟁, 그리고 영원한 「평행선」

### 당신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

- 114 세계화 시대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 123 성매매용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국제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
- 126 성매매 노동자 선언문
- 141 엠파워의 찬타위파 아피숙과의 인터뷰

# 목차

### 당신의 전쟁에서는.....

- 153 지구화의 기제, 군사주의
- 162 페미니즘과 군사주의에 대한 시론
- 176 첫발한 육체, 산산이 부서진 정신
- 184 과테말라 젠더 폭력

### 신의 이름으로, 보수주의 아멘

- 192 세계화 시대 반여성적 보수주의
- 201 베일에 가려진 자유
- 207 억압과 아프가니스탄 혁명적 여성연합
- 214 "여성들의 투쟁은 고립되어선 안됩니다"

### 대지모신, 땅에서 쫓겨나다

- 222 단종재배, 독점, 신화와 농업의 남성화
- 230 새로운 세계 무역 체제가 필리핀 여성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

### 238 관련 단체

## 여성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저항하라!

어느 나쁜 오후에 여성활동가들 몇 명이 몰려 앉아 꺾음을 맞추다, 급기야 열변 토해내며 여기까지 오게 된 사정을 생각하면 이 책의 제목은 「세계화 '반대운동'에 불만 있는 여성들을 위한 자료집」으로 마땅히 바뀌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정리해고의 주범으로 인식하든, 무한 경쟁주의의 교리로 생각하든, 노동착취와 임금삭감의 엔진으로 여기든, 불만 없는 여성들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주변부의 가장 끝자락부터 이어져야 할 그 생생한 불만의 소리들이 왜 빈 공간의 허공을 치듯이 되풀이되고만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누군가는 전 세계 여성들의 그 구체적 현실이 지표의 나열들로만 채워지고 있다며 답답해했고, 누군가는 그것이야말로 세계화반대 운동 내에서조차 주변화된 여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고 거들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세계 전역을 휩쓴 일련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서 여성은 분명한 한 몫을 했고, 여성의 독자적 의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남성적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운동 의제의 한 부문으로 끼워 맞춰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혹에는 세계화 기구들에 대한 단순한 개입을 주장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로비활동 정도에 그치고 있는 '주류' 세계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이 한 몫 했음은 물론이다.

평균에 간단히 흡수되어 버리거나 남성 혹은 여성 엘리트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전세계 여성들의 제각기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가장 주변부의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그들의 시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이 자료집은 그 첫 작업으로 기획되었다. '세계화와 제3세계 여성'이라는 방대한 주제 하에 욕심껏 하위 주제들을 엮다보니 처음부

터 난관이었다. 주변부일수록 정보 공유를 위한 자원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자료 수집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여성에 관한' 이야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은 무성적 혹은 남성적 프리즘을 거친 것이라거나, 그 자료들마저 매우 반복적이며, 심지어 관성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꼭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세계화에 대한 여성적 독해의 기초자료로 유용한 읽을거리가 될만한 글들을 다음과 같이 엮었다.

먼저, '세계화는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총론적 글들로서 세계화의 메커니즘과 제3세계 여성의 억압의 역학에 대한 큼직한 그림을 그려준다. 특히 IMF, WTO와 세계은행의 자유무역 체제와 구조조정 정책이 어떻게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구의 민주화나 여성의 개입 확대 등을 주장하는 소위 '사회적 조향'파와, 이 기구들은 근본적으로 반여성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필자들의 차이가 흥미롭다.

'끊임없이 노동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에서는 초국적 기업을 위시로 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제3세계 여성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생생한 현장 사례를 모았다. 가부장제와 공모한 자본주의가 여성들의 노동을 어떻게 규정하며, 다중적인 부담과 고통을 부여하고 있는 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신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는 불안정한 직장과 빈곤에 허덕이던 여성들이 국제적 성매매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둘러본다. 세계화가 기존의 성매매를 어떻게 더욱 확대·강화시켰는지를 살피고,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조직하고 투쟁하는 인도와 대만의 성매매 노동자들을 소개한다. 한국에서는 다분히 논쟁적이지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정체화하게 된 과정을 살피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를 기대한다.

최근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전세계적 위협과 초국적 석유회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살과 인권탄압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는 군사주의의 강화를 재촉한다. 군사주의는 극대화된 남성성의 발현으로, 이 속에서 여성의 육체와 정신은 군홧발에 짓

밝힌다. '당신들의 전쟁에서는...'에서는 군사주의와 여성의 관계 및 그 구체적 사례를 담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과테말라에서 좌익 척결 작전의 일환으로 여성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말한다.

'신의 이름으로, 보수주의 아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인권 탄압을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처한 끔찍한 상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반여성적 근본주의가 특정 국가나 특정 문화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 정치, 문화적 '신'보수주의는 서구에서도, 혹은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맞서 그 아말로 목숨 내걸고 싸우는 여성들의 투쟁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대지모신, 땅에서 쫓겨나다'에서는 인류, 더 크게는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환경과 농업의 파괴에 관한 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생태주의적 고갈과 환경 파괴는 생계와 식량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 크나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든 초국적 기업들이 여성농민들의 생계기반을 어떻게 박탈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지, 반다나 슈바의 글을 필두로 고찰해 본다.

'세계화 반대 제3세계 여성팀'은 세계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과 제3세계에 기반한 민중적 시각을 결합시키면서 대안적인 세계화 반대 투쟁을 형성한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여성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이 초보적 작업에만도 많은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작업이 우리의 힘만으로 완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지지, 그리고 참여를 기대한다.

2001년 6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세계화 반대 제3세계 여성팀

## 세계화는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 여성,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지배를 뒤흔들다\*

마야 잔시

새로운 지구적 여성운동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듯하다. 미국과 전세계 여성들은 작년 11월 시애틀을 뒤흔든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항의 시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조직화, 행진, 그리고 직접행동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적 확장이 곳곳에서 야기시킨 재앙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전세계 여성단체들은 무임금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2000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세계여성과업을 제창했다. 또한 138개국의 여성들이 2000년 세계여성행진을 위해 여러 국내 행동들을 조직하고 있다. 10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행진도 그 중의 하나이다. '포스트페미니즘'의 쓰레기통 속으로 몰려서가는 커녕, 세계 여성운동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또한 강력하다.

이러한 지구적 행동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은 소위 세계화가 강요하는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세계 극빈층의 70%가 여성이다. 여성은 세계 식량의 50%를 생산하지만, 그들의 수입은 겨우 10%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

성의 50%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역설이 되고 만다. '자유화'된 자본의 팽창과 그것이 잉태한 근본주의의 억압을 받으며, 여성은 현재의 지구적 위기를 바라봄에 있어서 고유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인가?

더 싸고 더 '유연한' 노동을 찾는 자본의 움직임은 세계 노동력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비중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25-50% 더 적은 급여를 받을 뿐이며, 기업가들은 여성을 더 순종적이고, 덜 조직적이며, 결혼이나 임신 같은 등을 사유로 해고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있다.

여성들은(종종 십대나 더 어린 나이)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그리고 손재주를 요구하는 조심스러운 일에 더 적합한 것으로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하청 및 시간제 노동, 계절 노동, 성과급 노동 등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여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더욱 착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의 노동은 부차적이며, 따라서 쉽게 잘라버릴 수 있는 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의 94%가 비정규, 미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고 또한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필리핀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의 70-73%를 점하고 있으며 노동조건은 사상 최악의 상태로 하락했다.

이런 사정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이민 여성노동자들이 의류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주된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 경제 및 사회권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는 패션 디자인 업체 DKNY가 '강제적 노동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경향은 외주와 하청으로서 더 많은 여성노동자를 비조직 부문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심지어는 가내에서 초국적 기업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가내 노동은 여성을 가부장적 가족 구조의 억압 속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이주노동자 공급원이 되고 있다. 예를 필리핀 여성들은 홍콩으로만 약 6만 명 이상이 가정부로 '수출'되어 매년 십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또한 다른 많은 필리핀 여성들은 새롭게 부흥하는 성산업에 투입되기 위해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남성들이 에이즈 감염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8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들이 매매춘에 투입되기도 한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고용의 여성화'를 '양날의 칼'로 파악한다. 가정 밖에서의 소득 창출 능력이나 도심으로의 진출이 여성의 독립이나 자신의 의사결정 기회를 제고시켜 온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지난 2년 동안 한층 더 분명해진 사실은 그러한 독립은 기껏해야 변덕스러운 자본주의의 본성에 내재한 위기의 먹이감으로 순식간에 전락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아시아 경제 위기의 가장 큰 희생양이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수출지향적인 의류나 가구산업, 혹은 하급 플라스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고되었다. 필리핀에서는 여성 실업률이 1997년 12.3%에서 일년 후 15.2%(전체 실업률은 13.3%)로 상승했다. 남한에서는 매일 5,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성이 주요 구성원이었던 서비스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여성행동' 자료집, 1999년 2호)

인도네시아 역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 지역을 떠나왔던 여성들은 이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화로 이미 황폐화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소위 구조조정은 실업 수당이나 복지 혜택 같은, 이들에게 유용할 수도 있었을 몇 안되는 사회안전망마저도 파괴시켜 버렸다.



### 무임금 노동

'자유화'에 동반하는 것은 복지나 보건, 교육 등 공공 부문의 지출 삭감과 가격 통제 완화, 농업 보조금 삭감 등이다. 사회적 필요를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거의 여성이 짊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는 한 성(gender)에 전적으로 특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무임금 여성노동의 증가가 그것이다.

기술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는 가사노동이

나, 물건기, 빨감 구하기 같은 일에 여성이 소비하는 시간의 양을 줄이기는커녕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증가시켜 왔다. 한 예로 인도 북부의 여성들은 빨감을 구하는데 종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주변 숲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모히니 데비라는 여성은 이시스(ISIS International(www.isiswomen.org); 1974년 설립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으면 빨감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 나가떨어질 지경이 되어버린다."('여성행동', 1999년 2호)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의 일을 찾아 나서면서, 여자아이들은 훨씬 어린 나이부터 무임금 노동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오직 임금 노동만을 수치에 집어넣는 아동노동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도에서는 5천 4백 만에 달하는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2천 백만이다. 인도 여성 전체의 문자해독율은 39.4%이지만 남자의 경우엔 63.8%이다. 여성의 문자해독율은 라자스탄 주에서는 4%, 안트라 프라데시 주에서는 9%라는 놀라운 수치까지 떨어진다.

시장에 의한 규정력이 점점 강화되는 세계에서 여성의 무임금 노동은

더욱 저평가되고 있으며,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2000년 3월 8일 세계여성과업이 기획된 이유이다. 처음 아일랜드 여성들이 제안한 이번 과업에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페루, 멕시코, 쿠르디스탄, 네덜란드,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지지를 보냈다.

페루에서 원주민 여성들과 가내 노동자들은 '송꼬 와르미(케추아 말로 여성의 심장이란 뜻)'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자신들의 노동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안데스 지역의 여성들은 농사일(여성이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수확하며, 가축을 돌본다)을 통해 가계 수입의 50% 이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우리가 재배하고 준비하는 곡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우리의 노동은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은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를 돌본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농촌 지역의 생명과 문화의 주된 생산자이며 유지자이다.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여성들 간의 동맹이나 조직, 노동 및 환경 그룹들이야말로 세계 자본이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에 대한 협정들을 통해 분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무임금 노동을 뽑아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운동이다. '생산적' 경제로부터 '비생산적' 경제의 여성에게로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사회적 서비스를 이전시키는 것은 여성으로부터 더 많은 무임금 노동을 뽑아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임금 노동에 있어서 극악한 노동 조건은 가사나 육아, 부양 같은 여성의 전통적 노동의 확장과 궤를 함께 한다. 이것은 자본의 지배가 '새로운' 세계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잠재적 기반을 침해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여성의 중심적 위치는 창조적 저항을 위한 공간을 열어젖히고 있다. 국제 여성 운동에 있어서 새롭고 중요한 한 요소는

비정부기구(NGO)이다. 많은 NGO들이 세계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그 통제하에 있지만 몇몇은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신에 관한 여성의 권한과 세계은행이 부과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침식하고 있는 여타 여성의 권리들을 위해 싸우고 있기도 하다.

NGO 외부로 눈을 돌리면, 여성은 환경, 노동, 원주민 권리 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중요한 풀뿌리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여성들은 가혹한 복지 '계약'에 맞선 싸움을 이끌고 있다. 최근 뉴욕에서는 켄싱턴 복지권연합(Kensington Welfare Rights Union)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여러 풀뿌리단체 여성들이 미주행진(March of Americas)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 세계회의의 다른 얼굴

세계 전역에서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이나 그 잠재적 기반을 자신들의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불안정화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서, 특히 젠더 관계에 있어서 근본주의자들은 신비주의적 전통 질서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종종 여성의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세계화가 약속한 국경없는 세계로 대체되기 커녕, 근본주의와 우익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으며, 종종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 되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공포스러운 폭력이 자행되는 곳도 없다. 탈리반의 통치는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에 이르는 지배지역에서 절대적인 성별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 장소에서 여성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감싸야 할 뿐 아니라, 남자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거리를 걸을 수도 없다. 교육과 보건, 노동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예외없이 부정된다. 망명중인 아프가니스탄 혁명적 여성연합(RAWA<[www.rawa.org](http://www.rawa.org)>);



1977년 카불에서 창립된 단체로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독립적 정치 조직. 근본주의자들에 맞서 평화, 자유, 민주주의,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음)은 세계 여성의 날에 파키스탄에서 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했다. 최근에는 흑인여성연합이 RAWA에 지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미국 내의 자유주의적 여성단체인 페미니스트 머조리티(Feminist Majority <www.feminist.org>, 1987년 설립된 여성운동 조직, 미국 여성의 대다수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를 포함해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아프간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내기 위한 행동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것은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되고 있는 여성 운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이다.

여성 운동에 있어서 NGO의 중요성은 이들에 대한 우익 정부의 반동적 움직임에서도 확인될 수도 있다. 한 예로 파키스탄은 '시르카트가'라는 주요 여성운동 단체를 포함하여 약 2천여 개의 NGO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현재의 군사 정권은 전 총리 나와즈 샤리프가 물꼬를 튼 바 있는 여성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의회는 '명예' 살인에 반대하는 결의안 통과를 거부했다.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작년에만 최소한 286명의 여성들이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이름 하에 살해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잔혹한 살인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성운동 NGO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나치 동조 세력인 파시스트 자유당이 참여하고 있는 신생 연립 정부가 여성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성부는 많은 여성 NGO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단체들의 사활을 건 투쟁과 인종주의자 및 네오파시스트가 유럽연합의 한 국가를 장악하는데 반대하는 모든 오스트리아인에 대한 여러분의 지원을 요청한다." 인도의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방식의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영화제작자인 디파

메타에 대한 지지를 위해 결집하고 있다. 바라나시라는 힌두교 성지에서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들이 겪는 고난을 그린 디파 메타의 새 영화 '워터(Water)'가 근본주의 세력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망명 방글라데시 페미니스트 작가 타슬리마 나스린은 디파 메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인도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할 뿐이다.

이상은 세계 각지에서 세계화된 자본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에 서있는 여성진영의 성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일 뿐이다. 죽음과 불구의 위협에 맞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좀 더 인간적인 세상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지구적 연대 행동들이 세계 혁명 운동의 서막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91호 (2000/3/16)

「뉴스 & 레터스(www.newsandletters.org)」, 2000년 3월호

## 여성과 세계화\*

자야 메타\*\*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뿐만 아니라 식민지 세계 모두에서 노동력의 여성화를 목격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고용은 증가한 반면 남성 고용은 침체되었거나 감소하고 있다. 몇몇 학자와 활동가들은 이것이 여성 해방과 정치세력화를 향한 확실한 진보라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이 특정 하위직 미숙련 노동으로 밀려났고, 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남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직장에서의 평등권을 향한 투쟁이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노동의 여성화간의 관계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이해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노동의 여성화 과정의 복잡성을 드러내주며, 가족 내 여성의 종속과 더불어 직장에서의 주변적 지위는 아무런 장애 없이 축적을 보장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일차적 목표에 기반해 있음을 확실한 증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 축적의 구조조정 과정으로 파악되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들보다 더 싸고 더 유연하며 집단적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의 고용이 더 선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여성화는 여성노동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에게 주어진 경제적 공간을 제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의 의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대한 전면적 거부와 대안에 대한 모색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1. 서론

누군가 1990년대를 지배했던 주제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면 '젠더'와 '세계화' 모두 목록의 위쪽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자연히 '여성에 대한 구조조정의 영향' 또는 '세계화 과정에 대한 젠더적 분석'이라는 주제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집약하는 가장 훌륭한 해설 중 하나는 1997년 인간발전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인용된 한 필리핀 빈민의 이야기이다. 보고서의 주제는 '빈곤'이었고, 그 인용문구는 "빈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오두막을 철거당하고 있는 불법점거 어머니이다"였다. 이 간단한 인용문구는 다음을 밝혀준다.

#### 1)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 빈곤율은 1인당 가계소득(하루 1달러 미만)을 통해 구해진다. 혹은 여성이 빈민의 50%를 구성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빈곤 속에 살고 있는 13억 명 중 70%가 여성이다. 빈곤한 가계에서 여성이 많이 태어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빈곤 집단 내에서 여성이 절대적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남녀 간 소득 차이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두 가계에 비슷한 자원 기반과 기회가 주어졌다 할 지라도, 여성이 많은 가계가 빈곤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공식적으로 규정된 빈곤 집단에 여성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 위에는 가계 내 여성차별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경우 빈민으로 규정되지 않은 여성들이 빈민으로 규

정된 여성들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일한다.

- 생물학적 인종 특성 상 여성은 더 튼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보다 긴 수명을 가지며, 성비에서 앞섬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 남성 비율이 1보다 낮은 국가들이 많이 있다. 약 1억 명의 여성들이 이 지구상의 존재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2억 3천 8백만 명의 남성들이 철분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여성은 이의 두 배에 육박하는 4억 5천 8백만 명이 철분결핍증에 걸려 있다. 단백질 열량 부족으로 인한 발육 미달의 경우도 남성이 4억 명이 라면 여성은 4억 5천만 명으로 더 많다. 여성의 영양결핍은 여성의 재생산 시기에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저임금 집단의 성인 여성 중 95%가 50kg 미만의 체중을 가지고 있다. 영양결핍과 의료시설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출산 사망율을 초래한다.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50만 명의 여성들이 출산 시 사망한다. 생명의 기적은 죽음의 악몽이 되어버린다.

- 세계 9억 명의 문맹 인구 중 여성 대 남성 비율은 2대 1이다. 초등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 1억 3천만 명의 아이들 중 여자아이가 다수를 차지한다. [1995년 인간발전보고서]

## 2) 세계화는 부유한 자를 더욱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한다.

자본주의적 세상은 항상 소수(세계에서 몇 개의 국가이든 한 국가 내 몇 명이든)가 자원을 지배하고 다수가 빈곤에 살아가는 불평등한 세상이었다.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시장, 생산구조, 그리고 문화를 통합하려는 세계화는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래서,

- 1970년(세계화 시대의 초기), 저소득국가(LIE)의 1인당 연간소득은 200달러였고, 고소득국가(HIE)는 3,040달러였다. 1990년, 저소득국가의 1인당 연간소득은 350달러로 증가하였고 고소득국가는 19,070달러로 증가했다. 20년 동안 양측간의 비율은 1:25에서 1:56으로 증가했다.

-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고소득국가가 세계 자원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축적했다. 1993년에는 세계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OECD국가들이 자원의 80%를 지배했다. 세계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저소득국가는 세계 소득의 5%를 얻었다. 사하라 이남 지역 전체의 총생산은 텍사스 주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 통합된 세계 시장은 상품가격을 균등화하지만 임금은 그렇지 않다. 국내 경제의 달러화는 개발도상국 대부분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한다. 1990년 8월 페루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단행한 후지 쇼크(‘후지모리 쇼크’의 준말로, 후지모리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행한 구조조정 등의 강력한 경제 정책을 지칭함-옮김)는 하루 밤 사이에 원유가격을 31배, 빵 가격을 12배 증가시켰다. 1970년대 중반에 비해 실질 최저임금은 90% 하락했다.

-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의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적 수치만으로는 실질적인 불평등의 규모를 알 수 없다.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의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농촌 지역 가계 중 70%의 1인당 소득이 국가 평균의 10-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7년 세계발전보고서 및 미셸 초스도프스키 ‘빈곤의 세계화’, 1997년]

- 그런데 불평등의 진정한 규모 역시 소득의 규모나 자원의 불평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기술 격차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빈부 간 생활양식의 격차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부유층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다.

(일본에서든 인도에서든) 엘리트 관료는 이제 집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전자 신호를 통해 수천만 달러가 세계의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한다. 이와 달리, 민중은 전기나 안전한 식수, 의료지원, 식량, 교통, 그리고 안전한 거처도 없이 인간 이하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

## 3) 손발 묶인 세계화의 희생자들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패배자들은 이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들

은 정부 정책 결정에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으며, 시장에 대한 아무런 지배권이나 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고, 문제에 대해 저항할 능력도 없다. 필리핀에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동아시아의 성공적 국가들의 사회, 경제, 정치 구성요소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1997년 화폐위기 이전의 일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업 협정으로 필리핀은 농산물에 대해 자유무역을 실시했다. 관세가 대폭 인하되었고 수입할당량이 확대되었다. 페루와는 달리, 필리핀에 있어서 국제화는 옥수수 가격의 30% 인하를 의미했다. 미국에서 수입된 옥수수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팔렸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 농민들에게 엄청난 지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5년 미국 농민들에 대한 일인당 지원금은 29,000 달러였는데, 이것은 300 달러를 넘지 않는 필리핀 농민의 평균 연간 소득의 100배에 해당된다. 옥수수가 가장 중요한 농작물인 필리핀에서 결과적으로, 약 1억 2백만 명의 농민의 삶이 파괴되었다. [1997년 인간발전보고서] 가난한 여성, 남성 농민이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 하는가? 미국 농민들? 지원금을 준 미국 정부? 불평등한 자유무역 체제를 가져온 WTO? 아니면 1994년 효율적 정책 결정으로 당시 전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던 필리핀 정부? 마지막으로 그 인용문은 아래를 말해준다.

#### 4) 여성과 남성은 빈곤을 다르게 경험한다

여성과 남성은 빈곤화의 점과 전지구적 통합 과정으로부터 초래된 주변화를 다르게 경험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적으로 위치 지어진다는 점을 전제로해야 한다. 이 전체의 윤곽을 그려내는 페미니즘 연구로 확장된 맑스주의 이론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

## 2. 이론을 재검토하다

(\*편집자 주: 저자는 이 단락에서 맑스와 엥겔스의 재생산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나 생략하도록 한다. 이 단락이 포함된 전문은 <http://revolutionarydemocracy.org/rdv5n2/womglob.htm>에서 볼 수 있다.)

## 3.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된 맥락

위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세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변화된 맥락의 윤곽을 그려내고 여기에 여성을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전후 세계질서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역사적 합의로 특징지어진다.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자본주의적 생산 구조와 관계를 끊고 자체적인 개발의 목표를 재정립했다. 모든 성인 시민에게 고용의 권리가 주어졌으며, 사회주의 세계 내 모든 이들의 기본적 필요 요건들이 충족되었다.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 지출을 통한 수요 관리라는 케인즈주의적 틀에 기반하여 복지국가 모델로 변모했다.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혜택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주도의 야망에 찬 산업 개발 프로그램들에 착수했다.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전히 빈곤과 주변적 위치에 놓여있었지만, 조직화된 부문에 진입한 소수만이 선진국으로부터 모방한 법제도가 마련해준 고용안정과 혜택을 누렸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미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된 부문으로 안정적 고용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전후 경제성장은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1970년대 초에 자본주의적 축적이 새로운 구조적 위기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더불어 경제 성장의 둔화, OPEC국가들의 석유 파동과 같은 추가적 혼란, 그리고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비로

소 대대적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본은 수익성이 있는 투자 통로를 찾지 못한 채 중심에 축적되었다. 1970년대는 또한 기존의 사회주의 세계가 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사회, 정치, 경제적 모순들이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였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야망에 찬 산업 개발 프로그램들은 폐기되었으며 선진국을 따라잡으리라는 희망은 짓밟혔다.

위기에 대한 자본의 반응은 기존의 활동으로부터 부문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멀어지는 것이었다. 이후 진행된 자본 축적의 구조조정 단계는 세 가지의 주요한 특성들을 갖게 되었다. (1)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 (2) 생산적 활동에서 금융으로의 전환, (3)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 이 세 가지는 물론 우리가 현재 보고있듯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축적 과정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노동과 자본간의 합의는 파괴되었다. 새로운 이윤을 찾아 나선 자본은 국내 임금노동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90년대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 완전히 합류한 기존의 사회주의 세계를 비롯하여 세상 모든 곳에서 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이 제한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예비군으로 여성을 조직화했다. 19세기 산업화와 이 시기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설명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동의 여성화를 분석하는 데에 여전히 기본적인 좌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 4. 구조조정된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고용

금융으로의 전환과 제조업의 감퇴

생산적 활동에서 수익성이 높은 통로를 찾지 못한 대도시 중심부의 유향 자본은 금융 투자로 이동했다. 외환투기와 환율에 대한 높은 유

동성을 추동시킨 변동 환율제는 필수불가결한 배출구가 되었다. 1980년대의 외채 위기는 기업 합병, 인수와 부도의 홍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업 은행, 투자기관, 증권사, 거대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금융업자들의 안정적 육성이 촉진되었다. 지난 수년 동안 금융 구조는 규모 상으로 거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화를 기록하였으며 세련된 여러 기체들을 고안해냈다. 1일 외환거래 총액은 1조 달러가 넘지만 이 중 15%만이 실제 상품 거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실질적인 기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기관 투기자들은 거대한 기업들의 도산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켜 한 두 개의 국가도 아닌 지역 경제 전체의 몰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은 급속하게 감소하였고 실물 경제에서의 소득은 금융의 긴급상황에서 점점 취약해졌다. 제조업에서의 자본 감소와 이윤을 하락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노동비용을 절감하도록 재촉했다. 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1) 현존하는 주요 부문에서 새로운 부문(특히 마이크로전자 산업)으로의 투자 전환
- (2)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을 찾아 국경 밖으로 투자 이동
- (3) 다운사이징, 하청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 기존 공장에서의 노동 조직화 변경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2차 산업의 고용율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급속하게 감소했다. 노동자계급의 정예집단을 구성했던 제조업 내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철강, 조선, 탄광과 같은 전통적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전자 산업으로 이동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는 1978년과 1993년 사이에 25만 개의 일자리를, US 스틸은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축소했다.

[1996-7년 세계고용보고서]

## 마이크로칩 생산과 여성 고용

1970년대의 마이크로전자 산업은 19세기 섬유 산업이 차지했던 자리에 올라섰다. 이는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 중진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축적 과정을 치솟게 했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기계화 이후 섬유 산업은 자본가로 하여금 여성과 아동의 노동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리고 100년 후, 마이크로전자 산업이 이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이 새로운 분야는 일자리를 잃은 광산 및 조선노동자들을 쓸 수가 없었다. 웨이퍼와 칩 생산에 투자한 전자 기업들은 세밀하고 반복적인 일을 신속하고 집중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민첩한 손가락과 좋은 시력을 가진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노동자들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젊은 미혼 여성들이었다. 일을 처음 해보고 대개의 경우 농촌 또는 도시화가 덜 된 지역에서 이주한 이 여성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수행할 의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젊은이의 근면 성실함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난 후, 생산력이 저하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성들을 계약적으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이들을 새로운 보병들로 대체했다. 계약이 만료되면 이 노동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산업예비군에 다시 합류하거나 가사노동에 전념할 수 있다. 외면상으로는 결혼 이후의 새로운 가사노동을 책임지기 위해 노동 집단으로부터 철수한 듯이 보일 것이다.

1970년대 초 칩생산이 노동집약적이었을 당시, 스코틀랜드이든 미국의 실리콘밸리이든 일본의 큐슈이든, 전자산업 분야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은 70%에서 90%를 차지했다. 통합 회로를 조립하고 시험하는 생산라인 노동자들은 전부 여성이었다. 반면, 관리자들과 오로지 남성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작업장 내 젠더 위계를 유지시켰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황은 변모했다. 칩생산이 일본에서 중진국으로, 또 다시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미국에서 카리브해 지역

과 같은 저임금 경제로 대거 이동했다. 선진국들은 컴퓨터나 다른 복합 부속품과 같은 보다 높은 가치의 상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둘째, 칩 생산 과정이 자동화되었다. 자동화된 칩 생산은 공장 내에서 숙련도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공장은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연구자들과 공학자들을 요구하는 한편, 반숙련 (또는 미숙련)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했다. 고임금의 숙련 작업은 남성들에게 주어졌으며 하위 반숙련 작업은 여성에게 주어졌다. 여성들은 품질관리를 위해 고용되었다. 이들은 합성섬유 옷을 입고, 먼지가 일체 없는 방에 앉아서 미세한 판 위에 미세한 칩의 '철사들'이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본다. 이 작업은 반숙련 직무로 분류된다. 이 일은 단조롭고,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며 눈에 크나큰 압박을 준다. 이 산업에서 여성의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젊은 미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인색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된다. 노동시간은 매우 길다. 큐슈에서 여성들은 한 달 평균 약 30시간의 초과노동을 수행한다. 직업병 문제는 기업주들의 책임이 아니다. 만약 어느 여성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거나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 곧바로 해고된다. 왜냐하면 아프거나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는 생산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절대다수가 하위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한다. 그들은 산업예비군으로, 숙련적 고용에의 진입이라는 혜택으로부터 영구히 봉쇄 당한다.

## 선진국 비정규직 노동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전쟁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으로 조직화되었다. 두 경우 모두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구조조정된 축적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선진국 여성들이 임금노동자로 고용되었다. 그러나 이 때 남

성들은 전쟁에 나가 있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 집에 있었다. 선진국에서의 실업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의 실업율은 11.9%였고 스페인은 22%, 벨기는 14.5%, 호주는 8.5%, 그리고 캐나다는 9.8%였다. 일본에서도 실업율이 3.4%에 달했다. 미국에서만 실업율이 5-6% 사이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하락추세는 피고용자들의 실질 임금을 계속해서 축소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1996-7 세계고용보고서] 여성의 대량고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부문이 축소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은 지난 20년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은 이제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 직업들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 한 쪽의 직업들은 금융, 보험, 사업 등 지식과 정보 집약적 부문을 형성했다. 이러한 일들은 높은 교육과 기술 수준을 지닌 전문가와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단순히 높은 수준의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정보산업에서의 기술은 단 몇 주 사이에 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쪽에서는 노동집약적이고 미숙련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처리나 간호와 같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과학적, 전문적 직업들, 유통업 서비스나 개인 서비스, 청소, 비전문 요식업, 기사보조원 등과 같은 직업들이 포함된다. 이 쪽의 미숙련, 저임금 직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형성되었다. 국가가 운영하던 보건, 교육, 혹은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많은 일자리들은 사기업에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제조업 부문에서도 생겨났다. 선진국에서의 제조업은 지난 20년 동안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은 최종 생산의 구조, 생산 과정, 직무 조직화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새로운 기술은 서구가 일본으로부터 빌려온 새로운 관리 모델에 부합한다. 제조업에서도 한 쪽에는 숙련된 전문가, 다른 쪽에는 반숙

련 생산 노동자로 기술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블루 칼라 기능공처럼 화이트 칼라 관리직이 점점 더 남아돌기 시작했다. 일본의 관리 모델은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서로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품질관리 소조를 강조한다. 품질관리 소조들은 미묘한 착취적 행위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이고 노동의 소외를 없애는 방법으로 널리 인정받았다.

일본식 관리 모델의 또 다른 측면은 생산을 대대적으로 하청에 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제1공장을 작고, 현대적으로 관리 가능하게 유지해준다. 하청업체들은 원청기업에게 주요 제품의 부속품이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하청업체들은 빈약한 자본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며, 원청기업에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에 모기업이 강제하는 조건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규제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작은 사업장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과 계약직 노동을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수당도 없는 장시간의 초과노동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며,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다. 즉, 새로운 관리 모델은 가장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가지고 가장 원시적인 수준의 노동관계를 구사하는 것이다.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대대적으로 창출되는 것은 정규직 노동이 없기 때문이거나 직무가 오로지 비정규직 노동에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들은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수월하게 해주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을 선호한다. 유사한 업무에서 비정규직 노동의 시간 당 임금이 정규직 노동에 비해 훨씬 적다. 정규직 임금의 50% 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요 없어지면 즉석에서 해고될 수 있다. 식사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젓가락'을 비유하여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일회용 물품'이라 지칭한다. 전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일들이다. 고용주들은 출세와 승진에 대한 장기적인 희망이나 사내 직업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유급 휴직, 병가, 출산휴가, 연금, 보험 등의 고용 관

런 혜택들은 비정규직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노동강도가 느슨한 것은 아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비정규직의 1일 노동 시간은 정규직의 노동시간보다 아주 약간 적을 뿐이다.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하루에 7시간 반 정도나 되는 노동시간을 요구한다. 총 노동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노동강도는 더 높다. 특정한 작업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시간에 따라 고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동시간 동안 여유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선진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대다수 여성에게 주어지는 노동 기회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묘사이다. 비정규직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차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은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OECD 국(독일, 영국, 일본)에서 전체 여성 고용의 45%를 비정규직이 차지한다. 다른 국가에서는 35%에서 45% 정도 된다. [1998 세계고용보고서]

선진국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 곡선은 여전히 'M'자를 형성하고 있다. 소위 가장 발전된 문명 국가에서도 여전히 오로지 한 줌의 여성들만이 전문직이나 다른 직업의 높은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상층부 여성들을 위한 고용 기회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기술 습득과 이에 따른 직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서독에서는 여성의 바깥일은 결혼과 가족 내 임무와 양립가능할 때에만 고려될 수 있다는 법률이 1977년까지 존재했다. 이러한 사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여성들은 몇 년 동안 고용되어 있다가 재생산 단계에 이르면 노동시장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녀들은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간다. 그녀들은 장기간 동안 일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 수준과 협상 능력이 매우 낮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점점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하려고 나오는 것은 남성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가계수입이 축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가장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여성들은 주어지는 어떠한 기회라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 번 이 틈새

“예, 저흰 직장인이 들이  
예요. 불행히도 두 명  
다 저예요.....”



에 들어가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표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해준다고 말해진다. 실제로는 자본에게 가장 유연성 높은 노동을 가장 값싸게 제공해줄 뿐이다. 선진국의 중년 기혼 여성들은 구조조정된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주요 집단이 되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수행한 ‘여성과 일’에 관한 최근의 설문조사(1998년 7월 18-24일)는 여성들이 대규모로 노동을 하러 나오는 것은 여성 해방의 확실한 진보라고 선언한다. ‘이번에 이들은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나왔다’라고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에서는 어떤 노동력 이든, 필요에 따라 집으로 다시 되돌려 질 수 있다. 이행중인 자본주의에서의 여성 고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 구조조정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여성 고용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은 경제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강요받는다. IMF, 세계은행, GATT(그리고 이를 뒤따른 WTO)가 강제한 처방은 경제, 정치, 문화적 좌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다. 미미한 지원을 대가로 이 기



구들이 강제한 프로그램은 자본과 상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규제들을 철회하고, 환율 통제의 철회와 화폐 평가절하, 경제·사회적 활동에 대한 국가 개입 금지, 재정 적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당연히 노동 안정을 위해 적게나마 존재했던 법적 조치들마저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괄적 조치들이 초래한 결과는 개별 국가별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 도입된 자유화·세계화·구조조정 프로그램 결과의 공통적 경향들을 지목해볼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몇몇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침체(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 초인플레이, 탈산업화와 (아프리카의 경우) 기아를 겪었다. 통상적인 맥락에서의 성공담은 1980년대 내내 그리고 1990년 초까지 튼튼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동아시아에서만 나왔다. 물론 2년 전에 이 지역 전체가 대혼란을 겪으면서 세상을 긴장시켰다. 이제 현재의 형태로 자본 축적 과정이 지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자유화 프로그램은 상품과 농산물의 수출, 금융 및 부동산 투기와 외채 상환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잉여를 뽑아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타격은 심각했다. 실질 임금 하락, 빈곤 확산, 전염병 재발과 기아에 대한 통계가 넘쳐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국가가 핵심 사업의 공기업은 물론 국방과 행정 부문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의 주요 공급을 담당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산업 활동으로부터 국가의 철수와 자본 지출에 대한 엄청난 삭감은 대다수 국가에서 심각한 산업 침체를 일으켰다. 자본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규제 철폐는 금융자본에 대한 유동성과 투기 활동을 증가시켰다. 생산 활동에 대한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는 비교적 제한되었다. 게다가 초국적 기업들은 대대적으로 하청을 주었으며, 현지 기업들도 이를 따랐다. 결과적으로 이미 감소한 정규직 노동은 더욱 줄어들었다. 정규직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비공식 부문에서 급조된 열악한

일을 닦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에서의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었다. 비공식 부문의 밀집화는 임금 하락과 불완전 고용의 증대를 통해 흡수되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부가가치성 제조업의 임금 비율은 1980년대에 급격히 떨어졌다. 멕시코에서는 16%나 떨어졌고 (36.7%에서 19.61%로), 스리랑카에서는 12% (29.5%에서 17.2%로), 터키에서는 15% (34.6%에서 19.2%로) 등으로 각각 하락했다. [1996-7년 세계고용보고서]

#### 수출 제조업과 여성노동자

개발도상국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화에 집중했다. 벌어들인 외화는 초국적 기업들의 이윤으로 다시 송환되고 외채 상환으로 쓰여졌거나, 현지 엘리트들이 사치성 수입으로 전용해버렸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 중심이었던 개발도상국들의 전통적 수출품은 대부분 전자 부품,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수출로 대체되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전자 업체들은 칩 생산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 저임금 경제로 지속적으로 이동시켰다. 생산 설비는 해외에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직접 소유하던가 아니면 국내 기업들에게 하청 형식으로 주어졌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급급한 현지 정부들은 감세, 수입관세 면제, 무제한 이윤 송환,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들을 갖춘 특별 수출 공단을 제시한다. 공단 내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을 금지시킴으로써 순종적인 노동력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공단에서의 노동력은 대부분 노동 경험이 없는 젊은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카리브해의 이들 여성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대부분 농촌 또는 도시화가 덜 된 지역에서 이주한 여성들이다.

수출 공단에서의 노동 조건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펴더라도 매우 열악하다. 여기에 있는 공장에 일하러 온 여성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남

성 산업 노동자들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다. 더군다나 이 곳에서의 임금 구조는 노동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적은 기본급에 생산성, 초과노동, 유급 휴가 반납 등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수당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생존하기 위해 노동 시간과 노동강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수당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한 일본계 기업은 하루 3교대 운영을 위해 4개조를 편성했다. 일요일에도 노동을 한다. 한 조는 휴일 없이 3주 간 근무한 후에 이틀간의 휴가를 얻는다. 방글라데시의 한 의류 공장에서는 여성들이 아무런 수당도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장시간의 초과노동을 수행한다. 방글라데시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노동은 흔한 광경이다.

젠더 위계는 직장 내에서 남성 소유주, 임원과 관리자, 그리고 조립라인 여성노동자들로 재생산된다. 여성들은 화장실 왕래 제한에 대해 불만을 호소한다. 공장 내외에서 반복적인 성희롱이 허다하게 발생한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장시간 노동은 직업병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이 여성들에게 해고를 의미하게 된다. 국가나 고용주들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여성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유는 공장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공장 내에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협상을 할 수가 없다. 만약 여성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 그 여성은 지금의 직업으로부터 축출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공장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조건들이 유지되는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모가 있다.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으면 떠나거나 떠나도록 강요 받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노동자 대체율이 높다. 적은 자본을 투자한 고용주들은 언제든지 공장을 폐쇄할 수 있고, 초국적 기업들은 더욱 푸른 초원으로 이동하면서 하청 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불안정하다.

이것이 바로 탈식민지 경제의 산업화 초반에 성장한 국가 고용 또는

국가 보호 하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제3세계에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력이다.

## 농업에서의 여성

개발도상국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농업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불완전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노동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농업 또는 농업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 소유 구조는 매우 왜곡되어 있다. 대다수의 가계들은 토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양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소득 활동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남성과 거의 동등하다. 이들은 임금노동자 또는 가사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활동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분업이 이루어진다. 물론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논을 갈고, 모내기를 하고, 수확하는 등의 농작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책임이다. 여성들은 씨앗 보관, 키질, 건조, 혹은 정미 따위의 집과 가까운 일들을 수행한다. 또한 상당수 가계들은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생계 노동이라 불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대다수 가계들은 소비를 최소화하여 매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생존해나간다.

세계화는 이들 가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균형을 점점 더 파괴해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보조금을 통해 재배한 곡물들을 제3세계에 값싸게 수출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그들은 자국의 농산물 기업들을 위한 열대 과일, 꽃, 그리고 다른 현금 작물들을 열대지방으로부터 얻어내길 원한다.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개발도상국들이 곡물 수입 장벽을 철폐하도록 강제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필리핀 농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계 기반을 잃었는지 살펴 보았다. 가트에서 협상되었던 씨앗에 대한 특허권 부여는 농업을 파괴할 또 하나의 조치이다. 취약한 농업에 악영향을 끼칠 두 가지의

과정은 공유지로부터의 축출과 농촌 기반 산업에 대한 국가 지출의 삭감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초국적 농산물 기업들은 토지를 직접 사들이거나 중농 및 부농들에게 하청을 주어 생산하도록 한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토지 사용과 토지 소유 구조가 변화되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중간 및 대규모 농장들은 기계화되고 세계 시장과 세계적 생산에 통합되고 있는 반면, 취약한 부위들은 기존의 활동으로부터 차단되어가고 있다. 주변화된 소농들은 자신의 자원을 통해서 더 이상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토지를 포기하고 있다. 무토지 농민의 비율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가사 노동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임금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안 농사일만 하던 농촌 여성들이 격리 규범과 푸르다(purdah;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위해 쓰는 베일-웁간이)를 무시하고 1974년 기아 때 '식량을 위한 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되면서 대대적으로 밖으로 나왔다. 하수구와 관개수로를 위한 삽질과 굴착, 도로 공사와 홍수 제방 쌓기 등 고된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다른 여성들은 논일에 합류했다. 남성 노동과 여성 노동간의 경계가 변하고 있었지만 여성 임금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 임금의 절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곳에서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낮고, 기계화가 여성들의 일보다 남성들의 일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임금노동자로서 더욱 선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대자본이 들어오면서 고용의 탄력성이 급속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임금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천만 명의 여성과 남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체비들의 여단'이라 불린다.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와 가축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남성들은 보다 부유한 지역에서의 농업 임금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또는 농업 이외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나갔다. 남겨진 여성들이 경작하기 힘든

토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지게 되는데, 남성들에 비해 많은 계약을 받는다. 여성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대출이나 다른 자원을 얻어내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3세계 농업의 변화는 소득이나 자원에 대한 여성들의 관리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역시 여성의 구체적인 절망의 상태는 전체 농업 노동자들의 빈곤화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기존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여성

기존의 사회주의 지역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이는 일반적 경향들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사적 자본과 시장 관계의 출현은 사회적 생산 부문으로 여성들을 끌어들이거나 이미 존재하는 여성노동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생산 활동으로부터 여성들을 대대적으로 해고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해고와 새로운 노동력의 조직화 과정 모두에서 나타난다. 모든 개별 국가에서 여성의 실업율은 남성의 실업율보다 5-6%, 때로는 10%나 더 높다. 헝가리만 예외인데, 여기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대대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실업자로 분류된 노동자들 중 70%가 여성이다. 독일 통일 8년 후, 동독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율이 10%나 더 높다. 공공부문, 섬유와 농업 등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던 부문의 고용은 완전히 몰락하였고, 단시일에 여성 일자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요식업, 소매업과 은행의 하급직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되었다. 그러나 동독 남성들이 같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였고, 고용주들은 여성보다 남성들을 선호했다. 노동시장으로부터 여성의 주변화 현상에는 당연하게도 가사생활과 재 생산 역할에 대한 여성들의 일차적 애착이라는 수사학과, 여성에게

어떠한 일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따라 붙는다.

기존의 사회주의 세계에서 이러한 정반대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에서 생산 및 재생산의 영역으로 여성들이 통합된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숫자는 급속하게 증가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70-90%였다. 여성 고용과 출산에 대한 ILO의 한 연구에 의하면 (보드로바, 발렌티나, 엔커 리차드즈 역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일하는 여성: 출산과의 관계'(제네바: ILO)) 여성들은 광업 및 운송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직업과 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직장에서의 성별 분업은 시장 경제보다 훨씬 더 평등하다는 것이다.

공업에서는 상당한 비율의 여성들이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소련에서는 공업 기술자의 40%, 일반 기술자 및 건축사의 43%가 여성들이었다. 또한 국영 농장에 배치된 농업경제학자의 30%, 가축 전문가의 55% 그리고 수의사의 37.5%가 여성들이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노동자로서의 역할간의 갈등을 감소해주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성들에게 특별 혜택들이 주어졌다. 사회주의에서의 출산 휴가는 우즈베크이 2개월, 체코슬로바키아가 6개월이며 동독은 1년이나 된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어릴 때 무급 양육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 동안 여성들의 직위와 모든 사회보장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유아들을 위한 탁아소,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시설 등을 아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나 탁아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제공되며, 노동자들의 식사는 작업장에서 제공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젠더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젠더 편향과 불평등이 존재하긴 했다. 학급 편성, 직업훈련에의 접근, 직업적 구조에서의 위치와 임금 수준에서 불평등이 있었다. 최고 관리층과 의사결정에 여성들이 도달한 경우가 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 직업 분배가 덜 차별적이었지만, 여성들은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었다. 젠더 차별도 있다. 또한 가사 노동의 사회화가 적절하지 못했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이중고를 호소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여성들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사회주의 경제에서 제공되었던 이점과 이득이 여성 지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노동의 재생산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인정되었다. 국가는 아동 양육과 노인 요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들은 값싼 노동력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사실, 출산 수당과 다른 기타 가족 수당으로 여성들은 더 비싼 노동력이었다.

이행기에서 국가는 여성들의 특권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사적 자본은 당연하게도 특별 혜택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 장애물이 없는 남성들이 선호되었다. 물론 여성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특별 시설들을 서서히 폐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탁아소는 사치성 시설이 되어버렸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이 완성될 때, 여성들은 자신의 일자리는 물론 노동자 및 어머니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동독 여성들에게, 점진적 적응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동독 여성들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 능력과 더불어 양육 지원 체계의 박탈로 동독 여성들은 출산 제한을 통해 절약하기 시작했다. 1989년과 1994년 사이 동독의 출산율은 50%나 줄었는데, 이 수치는 인류 역사 상 가장 급격한 감소치이다. 하지만 동독 여성들은 일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실업수당을 받아가면서 계속 구직신청을 하고 있다.

## 5. 결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임금노동으로의 조직화와, 구사회주의

권에서의 주변화는 동일한 과정이다. 즉, 전체 생산 과정에서 노동 비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자본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자본에게는 불행하게도, 1970년대에 시작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수행된 구조조정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축적 과정은 인류 문명의 지속성에 도전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대량 실업, 빈곤, 부의 집중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는 횡행하는 부패, 범죄의 증가, 어리석은 종족 또는 종교 분쟁들로 찢기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과거에 다른 모든 것을 그늘지게 하였던 금융의 역학이 최근 혼란의 국면에 도달했다. 세계 금융 구조와 생산 구조는 1930년대보다 훨씬 더 서로 얽혀져 있고, 따라서 붕괴의 위협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일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산과정의 여성화 또는 다른 부문에서 여성의 주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성들이 조직화되고 여성운동이 강화되면, 이 불공정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에 대한 모색을 (운동의) 의제로 다시 설정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여성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체제가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인간의 삶과 인간의 창조성에 절대적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이 체제는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에서도 해방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 Samir Amin, Capitalism in the Age of Globalisation, Zed Books, London.
- Nahid Aslambeigni, Steven Pressman, and Gale Summerfield (eds), Women in the Age of Transformation, Routledge.
- Veronica Beechey and Tessa Perkins, Matter of Hours: Women, Part-Time Work and Labour Market, Polity Press, Cambridge, 1987.
- Isa Baud and Ines Smyth (eds), Searching for Security: Women's Responses to Economic Transformation, Routledge Studies in

- Development and Society, 1997.
- Michael Chousodovsky, Globalisation of Poverty, Other India Press, Goa, India, 1997.
- Peter Custers, Capital Accumulation and Women's Labour in Asian Economies, Vistar Publications, New Delhi.
-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1997 (UNDP).
- The Economist, 'Women and Work', A Survey, July 18-24, 1998.
-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 40, No. 3, 1997.
- Valentine M. Moghadan (ed), Patriarchy and Economic Development, Clarendon Press, Oxford.
- U. Kalapagam, Labour and Gender Survival in Urban India, Sage Publications, 1994.
- S. Kruks, R. Rapp, and M. Young (eds), Promissory Notes: Women in Transition to Socialism,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89.
- Nandita Shah and Sujata Ghatoskar et al 'Structural Adjustment, Feminisation of Labour Force and Organisational Strategies' EPW, 30 April 1994.
- Guy Standing, 'Global Feminisation through Flexible Labour', World Development, 17, No. 7 (1989).
- Paul M.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Dennis Dobson, London, 1946.
- Bodrova Valentina and Asker Richard (eds) Working Women in Socialist Countries: The Fertility Connection, ILO, Geneva, 1985.
- Lise Vogel, Marxism and the Oppression of Women: Towards a Unitary Theory, Pluto Press, 1983.
-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World Bank).
- World Employment Report 1996-97 and 1997-98 (ILO).

\* 출처: 인도 연간지 「혁명적 민주주의」(<http://revolutionarydemocracy.org>) 1999년 9월호(vol 5 no.2)

\*\* 인도 경제학자, 공공성 연구그룹

### 은행가에겐 구제금융, 여성에겐 고통전담\*

리사 맥고완

'50년이면 충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확대를 위한 클린턴 대통령의 180억 달러 지출 요청에 대해 반대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IMF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IMF가 전세계 80여 개국에서 빈민과 노동대중, 특히 여성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철저히 종속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IMF가 장려하는 발전 모델의 일부분이 되었을 정도로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구로서의 IMF와 그것이 추진하는 경제정책 모두를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변화를 강제하려면 IMF의 기금조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젠더적 관점에서 본 IMF: 여성? 어떤 여성들인가?

IMF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 즉, 임금, 보건·교육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접근권과 질의 문제, 여성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분투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IMF의 정책이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시되고 있다.

그 영향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자료들은 IMF가

부과한 긴축정책과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대다수 여성들에게서 그나마 한때 남아있던 보건, 교육 혜택을 앗아갔음을 보여준다. IMF가 야기한 경기침체, 민영화, 정부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공식부문 실업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여성들은 국영 기업들이 민간부문에 매각됨에 따라 대량실업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 여성환경개발기구(WEDO)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의 여성 실업률은 평균 70%이며 우크라이나에서는 80%를 상회한다. 또한 수출과 자유무역지대를 장려하는 IMF 정책의 결과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착취공장(sweatshop)들이 확산되고 있다.

토지와 노동력을 수출용 곡물생산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통해 여성들로 하여금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경지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무보수 일꾼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만드는 아프리카의 경우처럼, 가계 소득과 살림을 지탱해주는 식량 생산과 다른 활동들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남성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전통적인 소득 창출 역할에서 밀려나면서 여성의 힘으로 유지되는 가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여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고된 일을 해야만 했으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조차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짐짓 무시하면서,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자신의 형제 조직인 세계은행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IMF의 틀에 박힌 방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IMF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미치든 간에 자신의 경제적 처방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지금,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 거시경제: 침묵의 살인자

다음은 구제금융 조건으로 전세계 80개국 이상에 부과한 IMF의 표준

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젠더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사례들이다. IMF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과 시장 개방, 그리고 수출 주도적 개발 지원 등을 위해 고안된 이러한 비슷한 정책들이 현재 상대적으로 산업화된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IMF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수출 가격을 낮추기 위한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 그리고 관세 및 쿼터제 등의 무역 규제와 가격 통제, 의 철폐 등이 포함된다.

여성농민들이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수출용 곡물 생산으로 자원을 전환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로 인하여 1980년대 1인당 식량 생산량이 매년 2%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시기 동안 식량 수입은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케냐 여성들은 자기 집 바로 앞에서 담배를 재배하는데 이것은 다른 식료품을 살만한 충분한 수입원이 되지 못하며, 우간다에서는 정부가 수출용 콩 생산을 유인하는 정책을 펴면서 여성농민들이 가족을 부양할만한 곡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자이레의 한 여성농민은 식량에서 수출용 곡물 생산으로 토지 사용을 전환시키려는 계획에 관해 언급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농촌 여성들의 현실에 관해 말해주었다. “수입이라 해봤자 식량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시아 여성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상이한 차원에 놓여져 있다. 여성들은 수출 산업 부문 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그들 자신이 중요한 수출품이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등으로 이주한 여성이 1979년의 8천 명에서 현재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필리핀에서는 1994년 현재 등록된 해외 파견 노동자의 67만 5천 명 중 6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이주자의 대다수가 비참한 생활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적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가정부, 유흥업 관련 노동 등) 서비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민간 운송회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송환되는 시신 (항공사의 수익성 좋은 신규 사업 중 하나)의 수로 어렵잡은 필리핀

이주자들의 사망률은 국내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게다가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공통된 질병(가족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 인종차별, 현지에서의 문화충격과 사회적 고립감, 본국 귀환시의 경제적 재편입 문제 등)으로 고생한다. 미국에서 일하는 2천 8백 명의 필리핀 가정부 중 2천 명은 세계은행과 IMF 직원들이 고용하고 있다.

통화정책: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상품을 좇음’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고 가정하는 통화정책의 제사장, IMF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양면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신용을 높게 책정하여 대출을 힘들게 만듦으로써 유통되는 통화량을 감축시키는 방식으로 ‘너무 많은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은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고금리 정책은 신용을 매우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미 여성들에게는 거의 희박했던 생산과 가계 경제의 비상시에 필요한 신용대출 접근권을 가로막는다.



·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고금리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해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남성보다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다. 남한 금융위기에 대해 IMF가 부과한 해법으로 인하여 1998년 한해에만 (많은 여성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5만 3천 개의 중소기업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보고서들은 남한과 태국 모두 여성이 정리해고의 타겟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태국에 소재한 재단인 여성의 벗(Friends of Women Foundation)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개월 간 정리해고된 미숙련 노동자의 80%가 여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총지출을 삭감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프로그램의 삭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수입 비용을 높이고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지출을 줄이는 통화가치 평가절하와 임금 억제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IMF는 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불황을 야기시킨다. 식량 보조금과 보건 예산에 대한 정부 지출 삭감은 인도와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에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소외를 낳는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IMF가 강요한 식량 보조금 철폐로 주요 도시들에서 폭동이 발발했다. IMF가 강요한 저임금 정책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성 소득을 한층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소득 저하로 인해 섬유 등 여성이 생산하는 대다수 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비공식 부문으로 밀려들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 부문에서 여성의 임금을 더욱 하락시켰다. IMF의 정책들은 종종 서로 어긋나게 작동한다.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식량, 연료, 비료 등의 생산 원료의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통화

가치 절하 정책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된다. 이는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품의 회소성을 증대시키고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 IMF는 상품과 서비스의 범주들을 인플레이션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티 여성들이 직면했던 상황들이 흔히 벌어지고 있다. IMF는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가혹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입 식량과 의약품 가격의 100-200%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자들로 하여금 경제 변화의 예봉에 자신을 정면으로 노출시키게 하기 위한 완곡어법에 다른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IMF의 고집은 여성 노동자들의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잠식해왔다. 여성들은 정리해고의 타겟이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년, 수십 년간의 투쟁과 노동조합 조직화의 결과물인 임금 인상이나 작업장 내 지위에서 얻었던 성과들조차 경제위기라는 이름 아래 제거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 탈규제는 여성들의 파트타임 노동과 불안정 고용을 확대시키고 가정에서 샅일을 하는 하청 계약 노동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에 지독한 저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조차 존재하지 않은데다, 생활과 노동공간이 분리되지 못하면서 여성과 그 가족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권리를 잠식하는 IMF의 선택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지원, 장려하는 것이다.

#### 여성들에 대한 점진적 공격: IMF 정책의 누적적 영향

IMF의 정책은 전세계 수많은 여성들에게 궁핍과 불확실성, 결코 끝나지 않는 생존권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폴란드에서 남아공,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에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져온 소득 저



하와 경제적 압력 증대로 인해 가족 내 좌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상황이 열악해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린이와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여러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 뼈에 사무치는 가난과 살아남기 위한 고뇌가 미치는 정신적 충격 등은 여성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손상을 가한다. 여성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생산 활동 능력과 사회에서의 생존력 또한 마찬가지로 저하된다.

IMF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여성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친다. 우리는 미국 의회와 클린턴 행정부에게 하나의 기구로서의 IMF와 그 정책 모두를 신속하게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전세계 여성들에 대한 착취의 공모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126호 (2001/3/19)

50년이면 충분하다(www.50years.org)

## [세계은행과 여성]

### 여성의 권리 침해하는 세계은행\*

미셸 초스도프스키\*\*

세계은행은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 두 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여성의 권리신장을 지지한다는 그들 주장의 견지에서 볼 때, 여성권리에 관한 세계은행의 정책은 진정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가 젠더 불평등의 감소와 경제발전 향상을 위해 여성에게 더 많이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여성 권리의 옹호자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sup>1)</sup>에 '젠더 평등을 향한 공공정책의 역할'과 '진보된 젠더 평등: 개념에서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 두 개를 제출했다. "세계은행은 사회정의와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젠더 평등을 증진시킬 것이다".

1) 1975년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 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 걸친 세계여성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는 멕시코시티에서, 제2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3차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이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베이징여성대회'로 불리기도 함)로서 이 회의에서는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었고, 매 5년마다 이것에 비추어 각국의 여성관련 정책을 평가하기로 하여, 2000년에는 "Beijing+5"회의가 뉴욕에서 열렸다. -윤건이주

(세계은행, '발전을 위한 열쇠로서의 젠더 이슈', 워싱턴, 1995)

### '시장지향적' 접근

개발도상국 전역에서 도입된 세계은행의 여성개발프로그램(WID)을 통해 세계은행은 젠더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젠더에 대한 '시장 지향적' 접근법을 처방하며 젠더 평등에 금융가치를 덧붙인다. 즉,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여성의 권리 신장이 가져오는 '기회비용'과 '효율성'의 맥락에서 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시장실패'의 가능성(따라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세계은행은 '자유시장'이 '여성의 권리 신장'과 젠더 평등의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모든 사회적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 효율과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여성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이다." 세계은행은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젠더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 방법론적 범주와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한다. '기부자 집단'이 여성 사무국과 여성부를 포함한 제도적인 구조(국가 수준에서)를 조정한다. 세계은행이 재정지원의 주요한 출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국내 여성단체들은 세계은행의 젠더 관점을 지지하기도 한다. 후자의 주요 목적은 편협하게도 국제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원하면서 여성운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세계 금융기구들의 신탁통치 하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은 통화 평가 절하, 긴축 예산, 건강과 교육에 있어 사용자 부담 증대, 공적 자금을 받는 신용의 감축, 무역 자유화, 곡물시장의 탈규제화, 최저임금제의 철폐 등과 같은 통상적인 거시경제적 처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개발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통해) 여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부금은, IMF와 세계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우선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저하되었던가에

달려있다.

실례로, 세계은행의 미시적 수준의 신용대출계획 하에서 진행된 농촌 여성들에 대한 상징적 신용(token credit) 계획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의 탈규제화, 극적인 이자율 인상과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제거를 요구한다. '빈곤 퇴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후자는 대대적 빈곤을 발생시키는 거시경제적 조치가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실행된다. '사회안정망' 하에서 진행되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소위 '취약한 집단', 즉 혜택받지 못한 여성, 원주민 여성, 여성 가장, 난민과 이주민 여성, 그리고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다. 빈곤의 구조적 원인과 거시 경제적 개혁은 무시된다.

### 교육

세계은행이 개입하는 또 다른 지점은 소녀들에게 책과 학습품을 포함한 초·중등학교 수업비에 대해 장학제도와 보조금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은 우선적으로 교사의 정리하고, 주요 교육예산의 삭감과 2교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 학년을 통합해 수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진행된다. 세계은행 교육 부문 차관 협정은 교육부가 교사를 감원하고 교생 비율을 증가시킬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지도 아래 진행된 '교재 임대비'와 수업료 제도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의 취학률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세계은행의 초점은 초등교육의 국가 재정지원 철취를 처방하는 동시에, 소녀들을 위한 비용 효율적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다.

(역시 세계은행 관리하에 있는) 보건의 비용 회수와 사용자 부담의 적용은 또한 여성의 권리를 훼손시킨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모자건강프로그램의 점진적 제거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산모 및 유아 사망률의 증가로 확인된다. 사하라 이남에서 보건서비스의 '탈전문화'의 경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기초 건강 관리의 붕괴를

남았다. 마을 보건 자원활동가들과 전통 치료사들이 지역 보건 간호사들 대체해 갔다. 재무성 비축금은 국가의 외채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비공식 보건'은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마을 보건소의 자체적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비공식 보건의 더 '민주적'이라고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초 보건 관리의 탈전문화는 사망률과 질병률에 관한 데이터 수집의 와해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 데이터를 문맹인 마을 보건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리고 정부에게는 다행히도) 정부와 국제 기구들이 기록하고 있는 유아사망률은 하락했다.

### '물리적 차별 정책'

유엔은 젠더에 관한 시각을 포함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의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베이징에서 제정된 행동강령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비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행동강령은 광범위한 원칙을 선언하는 데에나 관심이 있다. 1995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사회 정상회담(Social Summit)에서는 공식 문서에 들어가 있던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던 논쟁적 사안들이 삭제되었다. 이전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듯이 유엔 회의 조직자들은 공식회의와 NGO포럼간의 '물리적 차별' 구조를 유지했다. 시민사회단체, 특히 전세계의 여성 단체들은 공식적 과정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했다. 젠더에 관한 세계은행의 관점은 행동강령의 여러 부문에 들어가 있다. 이 강령은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생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여성들이 변화 비용을 부당하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인(gender-sensitive) 평가방법과 기타 관련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사회 발전에 대한 효과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한 대출뿐만 아니라 사회



적 발전을 위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한다. 사실상 앞서 말한 것은 세계은행 대출 활동의 관행이다. 행동강령은 암묵적으로 세계은행의 의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유효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행동강령은 젠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권력과 정치 기구로부터의 여성의 배제"라고 보고 "남녀 간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19조). 사회적 갈등에 대한 초점이 왜곡되어졌다.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젠더 틀 안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대체로 가족 안에서의 (개인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달려있다.

세계은행의 틀은 남녀 개인으로 이루어진 '자유' 시장 사회를 상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은 남성과 구분되는 사회적 범주에 속한 것(마치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사회적 계급으로 분리된 것처럼)으로 정체화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으로서의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립이 주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비춰진다. 이러한 젠더 분석은 권력과 기업 이윤의 집중을 다루지 않는다.

시장을 통한 현대화와 '여성의 능력 강화'는 젠더 평등을 달성하기 위

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전지구적 무역과 금융 시스템은 절대 의심받지 않으며, WTO와 브레튼우즈체제를 포함한 세계기구들의 역할은 진지한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값싼 노동'과 사적 이윤의 축적에 근거하고 있는 이 전지구적 경제 체제는 궁극적으로 젠더 평등의 달성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 중 하나이다. 그리고, '기부자'의 신탁통치 하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젠더 시각은 주로 국가 사회 내 분할을 야기하고, 거시경제적 체제에 대한 여성과 남성들의 투쟁을 가로막는다.

\* 출처: 「다시 일어서는 제3세계(Third World Resurgence)」, 61/62호 1995년 9-10월

\*\*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 사회과학부 경제학 교수로 한국에 소개된 그의 저서로는 「빈곤의 세계화」가 있다.

## 세계은행의 극빈층 원조 협의그룹: 세계 극빈층 여성에게 기회인가 부당인가?\*

전세계 빈민의 3분의 2가 여성이다. 여성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이러한 빈곤을 계속 유지시키는 요인들은 보건의료와 교육 및 직업 기회, 신용에 대한 접근권과 토지소유권의 결핍 등 복합적이다. 소액신용은 빈곤 근절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나 보건, 교육 등 사회부문 지출의 대용물이 아니긴 하지만 (특히 남반구에는) 일말의 희망일 수는 있다.

극빈층 원조 협의그룹(CGAP, 이하 협의그룹)은 '소액금융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창설한 복수 기부자 조정 프로그램(multi-donor pilot program)이다. 협의그룹은 세계은행 내에서 여성을 빈곤 근절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대된 결과 창설되었으며 이는 세계은행이 이름을 떨친 전통적인 대규모 기간시설, 구조조정 차관과의 분명한 결별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우리는 소액신용을 촉진시킨다는 협의그룹의 전략이 세계은행의 발전 계획의 전통적인 본질(민영화, 탈규제, 그리고 양자간 기부자와 민간은행, 초국적기업을 비롯하여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세력들의 의제를 선호하는 정책개혁 등)에 입각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협의그룹의 전략은 자유시장에서 이용가능한 신용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대의 혜택이 자연스럽게 극빈층 여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릇된 가정을 하고 있다.

협의그룹은 젠더 이슈에 관한 세계은행의 빈곤한 실질을 바로잡는 시도라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음에도 사실상 세계은행 간부들은 여성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협의그룹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여성들은 이에 대해 접근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이나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서 어떤 강제력도 없다.

이론상 소액신용은 빈곤을 감축시키고 거시적 차원의 긴축개혁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경감하는 데 잠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빈곤 근절을 위한 마법의 탄환이 아니며 보건, 교육, '사회 자본'에 자원을 할당할 필요성을 대체할 수도 없다. 아울러 협의그룹은 세계은행의 총 대출액의 0.01%에도 못 미친다. 한편 파괴적인 구조조정 차관은 수십 억 달러나 되는 규모로 계속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여성과 극빈층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을 보여주려면 그에 걸맞게 자신의 지출을 재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출의 (특히 소액신용과 관련된) 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 낸 도킨스 스킨리·다프네 와이스햄의 글을 번역  
출처: 인터넷서널뉴스 127호 (2001/3/16), 지속가능한 에너지·경제 네트워크(www.seen.org)

### 세계무역기구를 위한 여성의제\*

#### 여성환경개발기구\*\*

WTO는 브레튼우즈 기구들(세계은행과 IMF)의 설계자들이 1947년에 합의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하 가트)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가트에는 세계 무역을 조정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 무역기구(ITO)를 건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고용을 동반하는 자유무역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무역기구 출범은 실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트는 법적인 측면에서 한시적인 기구임에도,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의도한 것보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국제 무역 체제가 생겨나면서 가트는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기구의 목적이 완전고용을 위한 무역에서 무역을 위한 무역으로 바뀌었다.

가트는 무역을 우리 삶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잠식은 특정 범주의 생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규약들이 발효되면서 확산되었다. 가트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는 원칙을 따랐다. 비관세장벽은 식품안전법, 생산품 기준, 세금 우대, 투자 정책 등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른 국내법들도 포함한다.

그런 다음 가트는 무역관련 투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교역 생산품을 위한 보건 및 안전 기준 등을 다루는 규칙을 만들었다.

WTO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벌어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그때부터 WTO는 135개 회원국과 회원 가입을 원하는 32개국의 국제무역의 기본 조정자가 되었다. WTO는 가트와 몇몇 다른 다자간 협정에 대해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기구는 또한 자유무역에 '장벽'이 된다고 간주되는 국내법과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회원국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WTO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 규칙과 규제는 지역법이나 국내법, 정부간 협정들과 분쟁을 야기시켰다.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WTO가 승리를 거뒀다. 그 결과 새우나 참치는 미국에서 보호종으로 분류된 거북이와 다른 어류들을 보호하는 그물로 잡았던 그렇지 않은 간에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게 되었다(미국의 '멸종위기종보호법'은 멸종위기종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그물로 잡은 새우나 참치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1998년 WTO가 이러한 미국의 법률이 무역규칙을 위반했고 '멸종위기종보호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입금지가 풀리게 되었다-울긴이). 또한 호르몬 처리한 쇠고기는 유럽측에서 사람 건강에 잠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으로 수입되었다. 유럽연합에 바나나를 수출하는 카리브해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할당제는 WTO에 의해 규약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주되게 우려되는 것은 무역이나 재정 담당 장관들이 WTO를 이끌어 가는 방향이다. 그 방향이란 각국의 경제, 환경, 사회, 문화적 우선과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국내법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권, 여성의 권리와, 환경, 보건, 안전 기준을 보호하는 정부간 협정들을 비롯한 지난 십 년간 다른 지구적, 지역적 차원의 정부간 회의들을 통해 얻은 성과를 해체하는 과정이다.

국제적인 환경, 사회 협정에서 전지구적 규범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덕적 윤리와 관심을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경향이 되어왔다. 그러나

WTO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경제, 사회, 환경 관리의 구조를 무역 세계화라는 새로운 구성물로 대체하면서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1. 들어가며

전지구적 경제 및 무역 정책은 '젠더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여성은 전세계 13억 절대 빈곤층의 70%를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시장 세력과 세계화로 야기된 경제, 금융의 이행과 위기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 문제는 무역 자유화 관련 정책 결정과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각국 정부와 정부간 기구들이 젠더적 관점에서 무역 정책을 형성하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은 악화되었다. 임금노동이든 무임노동이든, 국가 통계에 기록됐든 그렇지 않든, 여성의 노동은 모든 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 정책에서 인정받아 마땅하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함이 분명한데도, 현존하는 연구들은 자유무역과 시장 자유화가 여성의 다중고를 증가시킬 뿐이라 밝히고 있다. 게다가 각국 정부는 WTO를 통해 지난 십 년간 다양한 정부간 협정으로 확립된 여성 인권의 정당한 진전을 감아먹고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 데 자네이루, 1992), 세계인권회의(비엔나, 1993),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CPD, 카이로, 1994), 세계사회발전정상회담(WSSD, 코펜하겐, 1995), 제4차 세계여성대회(베이징, 1995), 세계식량정상회담(로마, 1996)에서 합의한 획기적 협정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생물종 다양성에 관한 1992년의 유엔 협약은 주로 여성인 지역의 고유한 지식의 수호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은 초국적 기업들이 이 지식을 '소유'하고, 특허를 얻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WTO는 산업화된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유해 폐기물을 수출하

는 것을 금지하는 바젤협약과 오존파괴 화학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비롯한 유독 물질 교역을 통제하는 국제환경협정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 베이징 선언은 유엔헌장과 보편인권선언, 여타 국제인권 문서들에 명시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재확인했다. 189개국이 채택한 베이징 선언은 "경제,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행위자와 수혜자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를 주창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누릴 여성의 권리는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와 세계사회발전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열릴 WTO 제3차 각료회의와 무역이슈에 관한 향후의 모든 논의의 토론과 성과를 관통해야 한다. 이 입문서는 각국 정부가 WTO를 통해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정치·경제적 평등, 보건, 환경에 있어서 여성들이 이룩한 성과(바로 이 정부들 자신이 뒷받침한)를 손상시켰는가를 설명한다. 이 글은 여성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WTO 무역 정책의 결과를 서술하며, 변화를 위한 젠더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여성환경개발기구(WEDO)는 의식을 개선시키고 현재 WTO에서 진행되는 무역 협상에서 여성의 요구에 보다 민감한 무역 정책이 형성되도록 장려하고자 이러한 젠더적 관점을 제공한다.

## WTO 중재과정에 있어서의 남성 지배

분쟁해결기구(DSB) 회원국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분쟁해결기구는 남성들에 의해 지배된다. 항소기구(AB)에 임명된 7명의 성원은 모두 남성이다. 분쟁 심사단 명단에 오른 159명의 무역 정책 전문가 중 147명이 남성이고, 12명이 여성이다. [퍼블릭시티즌 세계무역감시단, [www.tradewatch.org](http://www.tradewatch.org)]

## 2. WTO에 대한 여성환경개발기구의 젠더 의제

1) 경제 의사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여성과 젠더를 포함시켜야 한다. 전지구적 관리는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책임성 있고, 공평하고, 젠더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WTO는 이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정부간 협정과 합의사항에 기반하려 하지도 않는다. 민주적인 WTO라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회원국들의 동등한 권리를 바탕으로 한 전지구적 관리 체제를 도모할 것이다.

WTO는 정부간 기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정책에 있어 젠더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십 년 내내 세계경제기구들은 자신들의 절차와 활동에 젠더적 시각을 결합시키려 노력해왔다. 1997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모든 분야, 모든 수위에서 입법, 정책,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모든 계획된 조치에 대해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갖는 함의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에서 젠더적 시각을 주류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 해에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담에서는 젠더가 경제 정책의 기획과 시행에 편입되어야 할 주제로 인정받았다.

세계은행은 빈곤 감축과 경제 관리에 관한 운영, 연구 및 정책 사업에서 젠더를 핵심지점으로 삼고 있다. WTO 또한 기술적 규제를 발전시키고 분쟁심사단으로 국제 무역 정책 전문가들에 의존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유엔 같은 정부간 기구와 소통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기구들과 협력해야만 한다.

젠더적 관점이 결여된 것에 덧붙여, WTO는 거의 배타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다. 이것은 남성은 젠더적 관점을 가질 수 없다거나 모든 여성이 젠더적 관점을 회의에 반영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남성배타성은 WTO가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반영할 가능성을 훨씬 축소시킨다.

점진적으로 시민사회에 문호를 개방한 다른 정부간 기구들과는 달리 WTO는 자신의 총회나 부설기구에서 NGO를 참관인이나 조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문, 토론, 협상 그리고 의사결정은 비회원들에

게 닫혀 있다. 이러한 조치는 WTO 회담의 결과가 시민사회에 영향을 줌에도, 불공평하게 시민사회의 참여를 규제한다.

그러나 모든 비정부 행위자들이 WTO의 운영 과정에 접근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 초국적 기업과 산업 로비그룹들은 정부 대표단의 성원으로 WTO 회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은 둘 다 ‘중년 남자들’의 네트워크이고, 기업 및 산업 로비그룹들을 한편으로 하고 무역 대표들을 다른 한편으로 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WTO의 의사결정에 독특한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경제 관료들은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일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는 ‘회전문’을 통해 무역 분야에서 핵심행위자들 중심의 폐쇄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낸다.

모든 정부가 WTO에서 평등한 것도 아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들은 회원이며, 하나의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부유한 선진국들은 종종 의사결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일은 주요 교역 파트너 사이의 폐쇄된 양자간 회담인 ‘주요국 회의(Green Room)’ 협상에서 이루어진다.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면, 두 주요 교역 파트너는 상품에 대한 관세나 자신들의 경제, 정치적 이해를 보호하는 무역 규칙들을 설정한다. WTO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지위라는 원칙 하에, 두 주요 당사국에게 이득을 주는 무역 관련 합의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 일괄적인 관세 수준을 적용하게끔 한다. 이러한 일은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 기업중역과 무역 관련 관료들 간의 회전문

· 에드먼드 프래트: 파이어(Pfizer)의 전 최고경영자이자 명예회장으로 미국 무역대표부 공식 자문으로 수많은 가트 협상에 참석했다. 그는 가트 우루과이라운드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 민간 부문 캠페인의 지도자였다.

· 피터 서덜랜드: WTO 사무총장으로 현재 BP 아모코의 공동회장이자 영국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회장 겸 전무이사이다.

· 아서 던켈: 전 가트 사무총장으로 현재 기명 WTO 분쟁 심사단원이자 네슬레 이사, 그리고 WTO에서의 투자협정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무역과 투자에 관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럽기업감시」, 4호, (www.xs4all.nl/~ceo/observer1/index.html)]

### WEDO의 요구

- 여성은 WTO 의사결정 기구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자국의 WTO 대표단의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
- WTO는 무역자유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젠더적 평가를 수행해서 해로운 정책을 밝혀내고, 여성이 무역 확대로부터 이익을 얻는 분야를 확대시켜야 한다.
- 각국 정부는 국가 무역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과 WTO에서 논의되는 모든 이슈와 결정 사항에 시민 단체들의 견해를 결합시켜야 한다.

### 2)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여성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은 자원에 대한 접근과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관습적, 법적 장벽에 맞닥뜨리고 있다. 조달, 여성 기업인 교육, 대출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정부 조달 협정이 확대될 경우 현존하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보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약 농업에 대한 WTO 협정이 보호 기제를 철폐할 정도로 확장된다면 세계화 정책에 의해 이미 악화된 여성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여성이 소유한 기업은 세계 기업의 2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지

구적 경제 세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은행가들은 자신의 기업을 소유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대부금을 더 잘 갚고, 가족과 공동체에 더 많은 이윤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99년 미국의 여성소유 기업은 2750만 명을 고용하였다. 이는 세계 50대 기업의 피고용인 수를 합친 것의 거의 두 배이다.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 신용과 기술, 훈련 등 기타 자원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여성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산, 마케팅 및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신용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미국, 영국,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공, 우간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립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차별조치(affirmative action)에서 신용, 기업경영과 기술훈련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포괄한다.

OECD가 발의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은 국제 투자자의 권리를 증대시키고,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제약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과 각국 정부의 권리를 축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MAI 도입을 위한 OECD의 시도는 전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 캠페인과 대중적 항의에 의해 중단됐다. 지금은 MAI 수정판을 WTO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적극적 차별조치 프로그램과 국내법이 위협받게 될 것이며, 전세계의 여성들로부터 경제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발판’을 앗아갈 것이다.

여성 기업인들에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거의 모든 정부와 그 하부기관들은 학교, 병원, 감옥을 비롯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공급되는 식품과 종이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한다. 대다수 개도국의 경우 정부 조달이 국내총생산의 30% 정도에 이르며 따라서 국내 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초국적 기업들에게 정부 조달 분야는 커다란 미개척 시장이다. 초국적 기업들은 가령 페루에 있는 공립학교에 음식을 제공하는 계약이나



중국 내무부에 종이를 공급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있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들이 정부계약을 따낼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단기적 이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공급자들이 사업분야에서 밀려나고 국가경제가 약화될 것이다.

현재 많은 정부와 지방 당국이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는 사회적, 환경적 기준과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부가조건이 덧붙여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모든 주요 계약과 하청계약 총 가치의 5%를 여성 소유의 소기업에 할당한다. 1997년의 경우 이러한 할당이 57억 달러 규모였다. 이러한 하청의 절반 이상이 유색인 여성 소유의 소기업으로 갔다.

때때로 각국 정부와 지방 당국은 또한 지역 공동체들의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그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국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로로 조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인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기업들이 미얀마(과거의 버마)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버마법'은 미국의 여러 주가 남아공에 대한 제재를 가해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한 미국의 동일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정부 조달이 WTO 규율 하에 놓이게 되면 그러한 노력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될 것이다.

여성들에게 정부가 조달 보조를 해줌으로써 국가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생각은 생소한 것이다.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정부 조달 프로그램이 젠더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가치있고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양성될, 즉 교훈을 얻어 전수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여성들은 생활 경제에서 식량의 주요 생산자이다. 자유무역과 구조조정은 이미 이 분야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보호와 보조금 철폐로 농업에 관한 WTO 협정을 확대하려는 안

이 채택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만약 여성 농민들이 기업인의 기질로 잘 대처할 수만 있다면 상품 농업으로의 전환은 여성들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신용, 기술, 토지에 대한 접근의 결여를 비롯해서, 여성이 남성처럼 무역 자유화의 잠재적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대규모 생산자들이 수출 부문 활성화 조치로 이익을 얻은 반면, 대부분 여성인 영세 생산자들은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했으며 많은 경우 이전에 갖고 있던 특권을 잃어버렸다.

WTO 농업협정은 각국이 자국의 식량을 가장 싸게 생산하는 나라에서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초국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둔다. 세계 식량의 대부분은 오로지 한줌의 회사들에 의해 통제된다. 가족 농민과 생계형 농민의 생계는 파괴되거나 위협에 처했으며 그 결과 또 다른 한편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품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업에서 쫓겨난 여성들은 초국적 기업들이 현지 노동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수출공장지대(EPZs)의 저임금 제조업으로 내몰렸다.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20-50% 낮은 임금을 받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다. 국제무역체제가 농촌 경제를 잠식함에 따라 여성은 뒤이은 격변에 노출되었다.

#### 사례: 여성 기업인이 남아공에서 정부 조달로 이익을 본 경우

남아공 여성 기업인 기술지원 프로그램(TWIB)은 여성이 소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세계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8년에 시작되었다. 여성 기업인의 기술 접근성이 경쟁력 있는 여성 소유 기업을 위한 기회 창출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2년 만에 수많은 남아공 기업발전 서비스 제공업체와 준국영 조직들이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규정을 마련하였다. 전자통신 거대기업인 텔콤은 중소기업 여성들에게 조달 입찰을 지원해준다. 텔

콤포는 또한 입찰 조건인 '관계적인 이행 보증 비용'을 여성 기업인들에게 감면해준다. 정부조달협정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은 위협에 처하게 된다. [“남아공의 여성 기업인 기술지원 프로그램”, 마트포비 리바, 「무역, 지속가능한 개발, 젠더」, 운크타드, 1999]

### WEDO의 요구

- 각국 정부는 세계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여성 기업인들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비롯, 지역·국가적, 사회·경제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확장된 조달 협정은 여성과 공동체, 문화, 환경을 보호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정부의 권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만약 국방비가 국가 안보 명목으로 예외 항목이 된다면, 이러한 예외는 환경, 국가 경제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식량공급의 독점을 방지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여성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 3)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성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만 하며 국내, 국제법상이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 판정은 이러한 노력들을 손상시켰다. 오히려 몇몇 정부는 WTO를 통해 WTO 판정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WTO의 이러한 움직임은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신과 자녀의 건강을 돌보는 여성의 능력을 경감시킬 것이다.

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은 국내의 환경, 보건, 안전 기준에 의해, 그리고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지지하는 국제 협정들을 통해 보호되어 왔다. 이 원칙은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해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있을 때, 어느 특정 주제에 대해서건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라는 명목이 보호 조치를 유예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구정상회담의 의제 21, 생물종 다양성 협정, 베이징 행동강령 등에서 분명하게 언급됐다.

WTO 위생검역협정(SPS)은 코덱스(Codex Alimentarius, 유엔 기구 외부의 정부 임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가 승인한 국제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각국의 보건, 안전법과 기준이 코덱스의 애매한 기술적 틀거리와 일치하지 않으면 무역에 대한 비판적 장벽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그것을 증명할 의무는 거꾸로 되어 있다. 즉, 문제된 상품이 안전하지 않은가, 그래서 특정한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할 의무는 해당 국가가 지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과학자들은 유전공학이 자연 독소 수준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독소를 출현시키며 환경에 독성 물질을 더 집약시킴으로써 식품을 유독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세계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을 거친 곡물과 동물 사료의 상업화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한 상품이 생물종 다양성, 식량 안전, 인간 및 동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는 신체에 살충제가 잔류하거나 항생물질에 대한 면역성이 증가하는 것 등이 있다. 유전공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인 이익이 소비자의 건강에 부과되는 잠재적인 비용보다 얼마나 더 큰 지 증명하지 못했다.

코덱스는 위생검역협정 아래 유전자조작 농산물이나 호르몬제 사용의 위험수위를 정해놓지 않았다. 유전자조작을 거친 생산물이나 호르몬제를 함유한 생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코

텍스의 위험 평가 과정은 건강한 여성이나 건강하지 않은 여성, 또는 임신하거나 수유하는 여성에게 다양한 식품 첨가제가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과테말라의 거버(Gerber)사의 경우는 이들이 국제협정을 따를 때조차도 국내의 보건법을 짓밟는 새로운 무역 규칙을 행사하는 권력을 보여준다(사례연구 참조). 식품의 화학물질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잠재적 건강 위협에 대한 정보 없이, 모든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을 초국적 기업들의 손에 맡겨두도록 강요 받고 있는 것이다.

### 모든 것이 유전자에 있다

유전자조작 농산물 논쟁: 유전자조작 식품은 이전에는 인간 식량의 일부가 아니었던 변형된 유기체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은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에 출하된다. 세계적 논쟁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유전자조작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그것의 이점을 역설하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논쟁을 촉발시킬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유전자조작의 응용은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신속한 응용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출원시킬 특허권과 창출할 수 있는 이윤이 눈앞에 있는 한 기다리려고 하지 않는다.

쇠고기 호르몬과 인간건강: 유럽연합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는 천연 호르몬과 합성 호르몬이 암 발생률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가 점차 축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 산업은 WTO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내부의 주요 생명공학 로비스트들과 함께 로비를 벌였다. WTO 규정 하에서는 쇠고기 호르몬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한편, 쇠고기 호르몬 생산자들

은 자사의 상품이 인체에 안전한 것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이 호르몬 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WTO 분쟁 심사단은 수입금지가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사례: 과테말라 거버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4년간, 미국계 기업 거버사는 과테말라가 2세 이하의 유아용 이유식이나 과일주스 상표에 건강한 아이의 그림을 넣는 것을 금지하는 유아보건법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는 운동을 벌였다. 과테말라 유아보건법은 인공분유보다는 모유 사용을 장려해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유아용 유동식 마케팅 규약(IFMC)을 이행한 것이었다.

거버사를 제외한 모든 국내, 국외 유아 유동식, 분유 생산업체들은 이 법을 따르기 위해 포장지를 바꿨다. 과테말라의 유아사망율은 법이 통과된 이후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제 과테말라는 유니세프 문서에서 규약 성공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과테말라 보건부는 법을 통과시키자마자 거버사와 법률 준수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거버사는 자사의 아기 그림이 국제 특허권에 의해 보호되는 회사의 고유상표라고 주장했다. 거버사가 법률 준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 본 정부는 이 회사의 모든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거버사가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가트를 배경으로 과테말라 정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거버사는 과테말라 법과 관련해 가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했지만, 과테말라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이러한 소송의 명령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어냈다.

과테말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버사의 편지에 따르면 가트 우루과이라운드의 지적재산권 조항은 과테말라 국내 보건법의 강제력에 비해 고유상표 사용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한다. 1995년에 이르러 과테말라 대법원이 수입 유아식품은 과테말라의 엄격한 유아보건법에서 면제대

상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거버사의 무역보복 위협은 성공을 거두었다.

[출처: 퍼블릭시티즌 세계무역감시단 www.publiccitizen.org]

### WEDO의 요구

· 기준 설정과 실험과정에 젠더 관련 평가 요소가 포함되도록 위생검역협정과 코덱스를 개정하라

· 소비자 권리와 보호에 기반하여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기준과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에 대한 협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 시민, 독립적인 과학자들과 NGO가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WTO와 그 대리자들은 보건, 환경, 소비자 기준을 설정하기에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 보건과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입안된 법률에 도전하기 위해 무역 규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WEDO는 WTO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소비자보호 기구의 개발을 지지한다.

#### 4) 여성이 가진 전통 지식과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초국적 기업의 착취를 방지해야 한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종자와 약초 등의 고유한 유전자원의 수호자였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식물과 인간유전자 자원을 포괄하고 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초국적 기업이 지역에 고유한 지식과 생명체를 전유하고 특허를 내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에게 지식의 원소유자였던 공동체에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개도국 여성들은 고유한 의학 지식의 수호자이자 사용자이다. 이러한

지식은 그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원주민 여성들은 자신의 지식을 더 폭넓게 사용할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에게 이러한 정보는 엄청나게 큰 이윤 창출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다.

생물종 다양성 협정은 생물종 다양성과 유전자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용에 관한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가령 고유한 지식의 상업화가 생물종 다양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루어졌다면 협정은 원소유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형을 열어놓았다. 특허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존재하는 지식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덧붙이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고, 특허를 낼 수 있다. 일단 제3자에 의해 특허권이 취득되면, 특허는 대부분 개도국 여성인 지식의 원래 소유자가 특허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과 그들의 고유한 지식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하에서는 지식이 특허 출원될 경우 특허권자의 독점사용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 생산품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다른 이에 의해 개발될 수도, 판매될 수도, 가격이 매겨질 수도 없다. 이러한 규정은 개도국에서 고유한 치료라이자 농민인 여성들과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예컨대 인도에서 여성 농민들은 수세대 동안 님나무(Neem, 마호가니와 유사한 히말라야 토종 나무로 인도에서는 수천년 동안 국민수(國民樹)로 경외받아 왔다-옴긴이)를 살충제와 살균제로 사용해 왔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살충제로 님나무에 대한 35개 이상의 특허가 출원됐다. 인도의 지역공동체들은 이미 너무 상승해버린 시장가격 때문에 이 전통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희생에 감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서아프리카의 딸기류인 펜타디플란드라 브라체아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기업 특허의 먹이감으로 전락했다(사례참조).

무엇이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모호성은 각국 정부간에 커

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WTO 내부에서는 모호성을 없애고, 가능한 가장 넓은 용어의 정의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몇몇 정부는 WTO의 이 협정이 이전의 환경에 관한 정부간 포럼들에서 이룩한 환경, 경제적 성과를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이 고유한 지식을 전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들은 WTO 분쟁해결 심사단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자국 정부에 의존해야만 한다. 인도 정부는 인도에서 수년간 사용해왔고 약초에 관한 수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든 당뇨병 치료제에 특허를 획득한 미국계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한 지역 공동체가 자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초국적 기업들은 해당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필요한 경우 기나긴 법정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더 큰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초국적 기업이 얼마나 공공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국가적 보건 위기라 할 수 있는 에이즈를 박멸하기 위해 남아공 정부가 분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정부는 에이즈 치료약을 특허권을 보유한 미국의 제약회사들로부터 받지 않고, 같은 제품을 싼 가격에 제공하는 동유럽의 무특허 생산자에게서 공급받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미국 정부를 로비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자신들의 가격 결정 권리를 보호하도록 개입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결국 미국은 소송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 사례: 서아프리카 딸기류의 브라체인 단백질

브라체인은 설탕보다 500배나 달다고 하는 서아프리카 딸기류에서 발견된 단백질의 이름이다. 다른 무설탕 감미료와는 달리 브라체인은 천연재료이며 열을 가해도 단맛을 잃지 않아, 식품 산업에서 특히 가치가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자들은 이 딸기에서 추출한 단백질

로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다.

후속 작업으로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브라체인을 생산하기 위한 초유전자적 유기체를 만들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브라체인을 상업적으로 채집하거나 재배할 필요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스콘신 대학은 기업들이 브라체인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전 세계 감미료 시장은 연간 천억 달러 규모라고 알려져 있다. 이 대학 연구자들은 브라체인이 자신들의 발명품이며 애초에 그 식물을 발견하고 사용하기 위해 재배한 서아프리카의 주민들과 이익을 나눌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GRAIN(1998), "식량 체제, 동물, 보건 체제, 인간에 대한 특허" 요약. 막달레나 카이후지(1999) "세계화되는 세계 속의 저개발국: 성별 균형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운크타드 보고서(1999)에서 인용]

#### WEDO의 요구

- 각국 정부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지혜, 전통적 기술혁신, 지식과 관습에 대한 보호가 생물종 다양성 협정과 일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각국 정부는 초국적 기업들이 원주민 공동체와 세계 생물종 다양성을 희생시키면서 동식물을 전유, 상품화하지 못하도록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125호 (2001/3/12)

「여성환경개발기구」 1999/11

\*\* 여성환경개발기구(www.wedo.org)

## 세계화와 남반구 여성의 과제\*

지타 센\*\*

내가 하려고 하는 바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폭넓은 맥락에서 세계화를 고찰해보는 것이다. 나는 전지구적 경제체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 문화적 과정들이 실제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식에서 오늘날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에 관해 같이 토론하고 싶다. 나는 또한 세계화와 그것이 남반구 여성인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 사이의 연관성을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세계화는 분명히 단순한 용어가 아니다. 세계화라는 말에는 많은 함축된 의미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의 발전 대안(DAWN)'에서 하는 일은 그러한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DAWN이 창설된 초기에 우리는 세계화의 일부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확실히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최근의 세계화 과정에서 '오래된' 특징과 '새로운' 특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전지구적 생산체제의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전지구적 생산체제는 명백히 지난 30-40년간 일어난 두 가지 기술혁명을 배경으로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다. 하나는 정보혁명이

고, 다른 하나는 생명공학 혁명이다. 내가 이것들을 혁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학자나 기술자들이 기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대체적으로 경제나 생산체제의 어떤 분야에서 일어난 약간의 변화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양한 변형과 결합을 지닌 전체 생산체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실제로 바꾸고 있는 엄청난 변화이다.

전지구적 조립생산 라인에서 읍내 양복점의 소멸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보기술 혁명과 연관된 통신의 속도와 효율성에 의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생산방식의 결과이다. 훨씬 더 새롭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르고, 이제 막 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또 다른 혁명은 바로 생명공학이다. 우리는 이것이 전지구적 생산체제의 성격에 미칠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생명공학을 생물종 다양성이나 지적재산권, 또는 이것이 남반구 자원의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생산체제 내의 모든 화학 재료들이 생물 재료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사실상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주요 변화는 은행, 주식시장, 보험, 통신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 또한 생산체제에 영향을 주었던 기술혁명과 관계가 있다. DAWN이 전지구적 경제와 구조조정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 15년 전만 해도, 매일 수조 달러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전세계를 넘나들지는 않았다. 금융 흐름을 지원하는 몇몇 서비스 영역의 내부 연계는 국가들과 세계 경제기구들이 상황을 관리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의 세 번째 핵심은 무역과 자본이동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는 분명 브레튼우즈 기구들과 같은 세계화의 핵심 행위자에 의해 매우 의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채무국에 대한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부과는 주권국가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켰다. 이와 거의 동시에 즉, 1980년대 중반부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WTO와 새로운 일련의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국제무역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리고 다자간투자협정(MAI)을 통해 국제적 자본 흐름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생산과 서비스 분배 체제 모두를 세계화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논리적 진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 세계화 시대의 여성 이슈와 젠더 문제

세계화가 남반구의 여성과 젠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세계화 내의 이러한 연계들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젠더는 세계화와 관련된 우리의 관심범위에 걸쳐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여성의 노동과 고용의 문제가 있다. 전지구적 조립생산 라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른바 서비스 영역에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이 현 생산체제에서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반구와 마찬가지로 남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이 노동력의 일부가 되고 있고 고용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핵심 이슈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성과 관련된 이민법의 성격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전에는 국제 이민자의 다수가 남성이었던 반면, 현재 이민자들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지역 출신의 여성들이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다루는 쟁점의 중요성은 이 지역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세 번째 영역은 민중의 삶이다. 자원 식민화 증대의 결과로 농촌 여성, 특히 공공재와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전통 지식을 기반으로 자원을 관리하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점점 더 취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성은 또한 초국적 생산체제에 의한 주변화나 혹은 그 내부로의 통합의 결과로 변화된 비공식 부문에서 모

습을 드러낸다.

네 번째 영역은 전체 사회적 재생산의 장이다. 그것이 세계화된 산업화 과정에 직면하여 연료나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계되든 아니면 보건, 교육, 육아와 모성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여성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들은 젠더와 여성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여성들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문화적으로 규정된다. 또 다른 영역은 무역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을 이끈 동력은 여성의 노동이었다. 수출의 동력 또한 여성 노동력을 이용한 것이었다. 출발부터 그러했다. 여성 노동력은 아시아가 이름을 떨친 수출기반 산업화 모델에서 절대적인 중심을 지속적으로 차지해왔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가간이든, 여성이 극도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지역에서의 인종 분쟁이든, 근본주의 경향의 등장으로 불가피하게 여성에게 적대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국가적 차원이든 간에 다양한 수위의 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폭력은 가계와 가족의 차원에서도 벌어지는데, 이 경우 남성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 수입, 생계, 고용, 그리고 '자기 여자'가 더 이상 '자기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차 폭력에 호소한다. 그들의 아내들은 여기저기 떠돌며 돈을 벌고 가계를 보조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들의 여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 경제관리의 정치학 비판

양차 대전이 끝나고 정치적 이슈만을 다루던 국제연맹이 실패한 후에, 강대국들은 경제를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각성은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으로 귀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개발 협력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시작되었다. 자본주의 내부의 경쟁을 위해 전지구적 체제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세계화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전지구적 관리에 대한 현재적 접근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직면한

것은 무엇인가? 유엔은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광신적인 금융체제를 지금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환경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려 하는가? 우리는 전세계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이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할 수도 없으며, 체제 밖으로 버려지는 점점 더 많은 주변화된 집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전지구적 체제의 상층부에 있는 권력자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선가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심사이다.

두 번째 관심사는 민족국가이다. 민족국가의 수준에서 우리는 논쟁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류 이데올로기의 논쟁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에서 '국가 대 시장'으로 점차 움직이고 있다. 이와는 전적으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 후원자가 되고 성장을 보증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주류의 논쟁은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장에 기반한 효율성 패러다임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국가들이 얼마나 시장을 인간화하려는 의지가 있을까? 이러한 과정 내에서 우리는 사실상 얼마나 많은 인간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 이들 논쟁에는 매우 흥미로운 다른 각본들도 있다. 가령 종종 민족국가나 정부들이 자율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마하티르와 수하르토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들이 정말 '국가 대 시장'이라는 오랜 논쟁을 재개하고 있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마하티르든 수하르토든 경제성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둘 모두 경제성장이 국가 기관과 정책의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에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들의 논쟁은 전리품의 분할에 관한 것인가? 체제가 진행된 방향으로부터 '지방적으로 이득을 얻는 이는 누구인가' 대 '전지구적으로 이득을 얻는 이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인가?

## 여성운동의 현재적 과제

전세계 여성들은 세계화가 낳은 문제들을 관리하거나 완화할 전지구적 능력이 부재한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다. 남반구 여성들 또한 '도래한 세계화'의 노선을 따라 발전 전략을 규정하는 정부들과 싸워야만 한다.

시민사회의 과제는 풀뿌리 공동체 수준의 활동과 참여로부터 성장한 조직과 기관들이 어떻게 일국적, 지역적, 전지구적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량의 측면에서 실제 심각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여성 조직들에게 있어 매우 커다란 이슈이다.

지난 20-25년간 우리는 국지적 경험을 일국적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일국적 경험들을 전지구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그 역할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즉 전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지방 공동체에 기반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DAWN의 지속적인 활동

DAWN의 '세계화의 정치경제에 관한 주제연구'는 식량, 에너지, 외채 위기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 착수한 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일국적 수준의 정책으로서의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갔는데, 구조조정은 전세계적으로 청사진 모델처럼 퍼져나갔다. 그 결과 우리는 브레튼우즈 기구들이 처방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양상과 양식을 지닌 세계화가 보다 심원에 자리잡고 있었다. 세계화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베이징여성대회를 위해 만든 『진행중인 이정표』라는 제목의 소책자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지난 해 DAWN은 여태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분야인 교육을 통한 역량 구축으로 천천히 중심축을 옮겨갔다. 우리 성원들은 인도, 남아공, 캄보디아 등에서 세계화에 관한 교육 워크숍을 수행했다. 여성운동을 하루 아침에 경제학자들로 전환시킬 순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분야에 관한 역량을 심화시킬 수는 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이외의 주류, 진보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세계화에 관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젠더 분석에 취약한 동료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여성조직들과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여러 몇몇 네트워크는 WTO나 MAI, 또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현황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반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뒤쳐지지 않을 수 있다.

\*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124호 (2001/3/5)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의 발전 대안(DAWN) 동남아시아 지부와 아시아태평양 발전센터(APDC) 젠더와 발전(GAD) 프로그램이 주관하여, 1998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에 관한 여성 원탁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이다.

\*\* DAWN(<http://www.dawn.org.fj>) 연구원

노동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 전지구적 노동착취공장\*

베로니카 듀존\*\*

여성들은 현재 세계 경제통합의 영향을 독특한 방식으로 받고 있다. 여성의 경험, 관심사, 그리고 요구들은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전파시키는데 있어 중심적인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

발전 정책이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몇 안되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 기반한다. 즉, 제3세계 여성에 대한 발전 정책들은 경제 정책이 여성들에게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흔히 해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970년대부터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소위 '자유시장') 정책에 기반한 현재의 세계 경제통합이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특히 여성들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농업부문의 40%, 산업부문의 4분의 1, 그리고 서비스 부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 식량 생산량의 최소한 50%는 개도국 여성농민에 의해 생산되고,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80%에 이른다.

그리고 전세계 빈곤층 인구 13억 중 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매일 노동 시간의 66%가 여성의 노동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의 수입은 전세계 수입의 10%, 전세계 재산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빈곤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해주는 것일까? 외채 위기를 전후로 한 제3세계 경제발전 전략은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덧붙여서 여성들이 정말로 수출공장지대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운 좋은 노동자들'이라면 왜 그들은 세계화된 경제 저 밀바닥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일까?

### 발전에서 파괴적인 외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을 위해 투쟁했고 국가발전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것에 착수하기 시작했다(이 발전 계획은 경제에 대한 상당한 국가 개입, 수입대체 산업화, 국내 산업 보호, 그리고 자본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을 포함한다.) 성공에 있어 나라마다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기는 제3세계 국가들이 내부 지향적인 발전에 초점을 둔 때였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초국적 은행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이 증폭하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재원을 빌려오기 시작했다. 그 재원의 일부는 건설적인 계획에 투입되긴 했지만 대부분은 부정부패로 탕진되거나 개인의 외국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이 민주적으로 도입된 예는 없다.

1970년대 석유 위기와 뒤이은 미국의 불황, 그리고 급격한 금리 상승은 1980년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던 제3세계 국가 경제에 큰 재앙을 가져왔다. 제3세계 국가들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 계획의 초점을 급격히 변화시켜야 했다. 그들이 지원했던 의제들은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보다도 훨씬 비민주적으로 폐기